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지 균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등미술교육에서의 치료적 미술활동 제안

-중학교 중심으로-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이 소 희

중등미술교육에서의 치료적 미술활동 제안

-중학교 중심으로-

김 지 균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이 소 희

인 준 서

이소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이 춘 옥 인

심사위원 최 민 영 인

심사위원 김 지 균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 변화의 혼란스러운 시기로 발달특성상 겪게 되는 스트레스 뿐 아니라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입시교육체계로 인하여 입시 경쟁의 부담과 학업에 대한 압박감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학교 안에서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일으킴으로 심각성을 낳게 한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놓인 청소년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배출구가 필요하고 자아 정체감 형성과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기표현을 통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발견하여 스스로 해결해 가는 능력을 갖추며 긍정적인 자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기회와 그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미술치료는 그 심상을 표현해 내는 도구로 미술 표현물로 사람의 마음을 읽고, 미술 활동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치료의 한 분야로 미술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 시키며, 감정과 욕구 표출 등 청소년들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청소년과 미술치료의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적 미술교육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중등미술교과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설계함으로 수업방안을 제안하고 교육현장에 적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하는 중학생 6명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1일~12일 약 2주간에 걸쳐 미술치료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에 적용된 단원은 자신의 느낌, 생각, 감정 등의 자기표현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발견' 이라는 단원을 주

제로 4차시에 걸쳐 수업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는 각 학생의 작품 감상 보고서를 참고하여 개인관찰 내용과 설문조사 결과 내용 등을 반영하여 나타내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미술치료기법이 활용된 치료적 미술수업은 다양한 재료를 통해 자신의 심상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미술에 대해 거부반응과 흥미를 잃고 있는 청소년에게 미술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창의성과 표현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둘째, 다양한 심상표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였다.

셋째,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 및 자신감을 갖게 하였고 또한 서로의 작품 감상과 발표를 통해 서로의 모습을 수용·지지·이해하여 자기존중감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갖게 하여 사회성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설계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얻었지만 적용하는데 있어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하는 중학생 6명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그 효과성을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더 많은 중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이 많은 미술교사들에게 치료적 미술교육의 효용가치를 알려주는 촉매제가 되길 바라며 이 논문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수립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 이러한 치료적 미술교육은 청소년의 심적 탈출구를 마련하고 청소년이 당면한 여러 문제와 병리현상의 예방 및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되어 보다 가치 있는 교육으로서 중등미술교육에 새로운 교육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 3 |
| 3. 연구의 제한점 | 4 |
| II. 이론적 배경 | 5 |
| 1. 청소년의 이해 | 5 |
| 1) 청소년기의 개념 | 5 |
| 2) 청소년기의 특성 | 6 |
| 3) 청소년기의 문제 | 10 |
| 2. 미술치료의 이해 | 13 |
| 1) 미술치료의 개념 | 13 |
| 2) 미술치료의 가치 | 16 |
| 3) 미술치료의 매체 | 18 |
| 4) 미술치료의 기법 | 20 |
| 3. 치료적 미술교육 | 47 |
| 1)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와의 관계 | 47 |
| 2) 치료적 미술교육의 의미와 배경 | 48 |
| 3) 청소년기 치료적 미술교육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50 |
| III. 치료적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 54 |
| 1. 현행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 | 54 |
| 2. 프로그램 설계 | 57 |

| | |
|-----------------------|----|
| 3. 프로그램 결과 및 분석 | 72 |
| IV. 결론 | 94 |
| 참고문헌 | |
| ABSTRACT | |
| 부 록 | |

표 목 차

| | |
|-----------------------------------|----|
| <표 1> 미술매체의 종류 | 19 |
| <표 2> 미술매체의 특성 | 20 |
| <표 3> 미술치료기법 | 21 |
| <표 4> 내재화된 부모상과 자기상의 그림 특징 | 26 |
| <표 5> 풍경구성 검사의 각 소재의 상징과 의미 | 27 |
| <표 6> 치료적 미술프로그램의 영역별 분류 | 37 |
| <표 7>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 38 |
| <표 8> 창의성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 40 |
| <표 9> 무의식적 표현 위한 프로그램 | 41 |
| <표 10> 감정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 43 |
| <표 11> 사회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44 |
| <표 12> 가족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 46 |
| <표 13> 교과 내용 영역 | 54 |
| <표 14> 표현 영역 | 55 |
| <표 15> 학년별 교과 내용 | 56 |
| <표 16> 기본평가 | 61 |
| <표 17> 개별평가 | 62 |
| <표 18> 단위 교수·학습 계획 | 63 |
| <표 19> 1차시 학습지도안 | 64 |
| <표 20> 2차시 학습지도안 | 66 |
| <표 21> 3차시 학습지도안 | 68 |
| <표 22> 4차시 학습지도안 | 70 |
| <표 23> A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 72 |
| <표 24> B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 75 |

| | |
|--------------------------------|----|
| <표 25> C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 77 |
| <표 26> D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 80 |
| <표 27> E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 83 |
| <표 28> F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 85 |
| <표 29> 수업 전 흥미도 | 88 |
| <표 30> 매체에 대한 선호도 | 89 |
| <표 31> 주제에 대한 선호도 | 90 |
| <표 32> 작품을 통한 자아표현과 감정표출 | 90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 목적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이행기이자 과도기인 청소년기는 신체, 생리 발달, 인지, 정서, 사회발달 등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로 가정에서는 자신만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또래 관계에 있어서 자신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을 인정해줄 수 있는 또래에 대한 강한애착을 보인다. 또한 자신의 정체감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놓인 청소년은 발달특성상 겪게 되는 스트레스 뿐 아니라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입시교육체제로 인하여 입시경쟁의 부담과 학업에 대한 압박감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은 가정, 학교, 또는 주변 환경 및 또래집단에서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겪으며 가출, 비행, 폭력, 불안,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배출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지닌 복잡한 사고와 감정들에 대해 깨달음을 주고 자신의 내면을 표출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청소년기에 당면할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문제행동을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회의 각 기관과 학교에서는 상담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미술치료와 관련된 많은 관심과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동아리활동이

나 방과 후 교실 등 학교 현장에서도 청소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의 규명과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접근형태로서 미술치료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미술치료는 미술과 치료가 결합된 것으로 미술활동을 치료적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문제행동이나 잠재적 문제행동을 감소 또는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적응, 성숙, 발달을 도와주는 심리치료의 분야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정서표현을 통한 자기이해와 성장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미술치료는 청소년에게 통제력을 가지게 하며, 창작활동의 즐거움과 새로운 시도,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함으로써 거부감을 줄여주고, 또한 그들의 작품세계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작품 안에 그들 자신의 이상적인 견해를 나타내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구체화시킴으로써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게 해 준다.

미술치료는 미술교육과는 엄연히 다르지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인 미술 매체를 이용한 창작 활동을 한다는 점과 그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사고 및 창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미술치료는 미술교육의 이론, 역사적 변천, 미술매체와 기법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상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미(歐美)에서 미술교사 및 상담교사들이 미술을 통한 치료적 관심과 필요성 때문에 교원연수 및 보수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대학의 미술치료학과에서 미술치료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교원연수에서 점차적으로 미술치료 과목이 도입되고 있다. 근래에 공교육기관의 현직 미술교사들뿐만 아니라, 사교육기관에서 미술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기존의 미술교육 외에도 미술을 통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한다. 이러한 현상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술교사들은 미술치료 연수나 교육 과정 등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¹⁾

1) 정여주(2007), 『미술치료의 이해』, 학지사, p 29

청소년기 미술교육은 인간의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신장되도록 돕기 위해 인간의 내면을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감상하게 하는 교육이며 그들의 잠재능력을 일깨워줄 수 있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고, 불안, 초조, 열등의식과 소외감에 빠질 수 있는 청소년시기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시키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이해와 미술치료의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미술치료의 교육적 효과를 인지하여 새로운 미술교육 방향의 하나로 치료적 미술교육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중등미술교과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설계함으로써 수업방안을 제안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치료적 미술 수업은 청소년기 복잡한 사고와 감정들에 대해 자신의 내면을 표출해 내고 자기 탐색의 과정을 통한 자기이해와 청소년이 당면할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문제행동을 감소 또는 예방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해 미술치료의 교육적 활용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학교 미술교육을 범위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과 내용을 적용하기로 한다.

첫째, 청소년의 개념, 특성, 문제 등 청소년의 이해와 미술치료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의 이해와 미술치료의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치료를 활용한 치

료적 미술교육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중학교 1학년 미술교과 내용을 정리하여 중학교 미술교과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교수·학습지도안을 설계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자 한다.

넷째, 수업 후 결과물과 학생들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치료적 미술교육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설계 하고 적용하는데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하고 인근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6명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4개의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실시하였기에 학생들의 변화를 알아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그 효과성을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향후 교육현장에서 활용되어 객관화된 결과가 도출되고 더욱 정교하게 수립되어 치료적 미술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어 미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이해

1) 청소년기의 개념

청소년기를 뜻하는 ‘adolescence’라는 단어는 라틴어 ‘adolescere’에서 유래된 것으로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의미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급격히 성장해 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성장 과정이 점진적이고 불확실하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엄밀한 구분이 어려워 청소년기의 시작과 종결 시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의 차이로 인해 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자’이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사춘기부터 성인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이 시기에 있는 자로서 신체적·생리적·심리적·정신적·사회적인 측면에서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에 있는 자, 즉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기는 그 지칭하는 용어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아동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아동집단과 성인집단 사이에서 양쪽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주변인(marginal man)으로, 신체적·생리적 성숙과 심리적·사회적 미숙에 따른 성장발달이 불균형으로 성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획득이 지연된 지불유예기(moratorium)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급격한 변화와 심리적 갈등이 심하다 하여 질풍노도의 시기(a time

of storm and stress)라 불리며 이외에도 제2의 탄생기, 제2의 반항기, 자아 발견기, 심리적 이유기, 중간인 등 매우 다양한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용어에서도 표현되고 있듯이 이 시기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내적 갈등으로 가득 찬 격동의 시기이며 다른 어느 발달단계보다도 가장 변화가 많을 뿐 아니라 성취해야 할 발달과제가 많은 시기이다. 이렇듯 청소년기는 인생여정의 아주 중요한 시기로,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는가에 따라 인생 전체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2) 청소년기의 특성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지적·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이 양적·질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는 나름대로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하고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각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신체·생리적 특성

청소년기가 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 신체적인 발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자는 성인과 유사한 체격과 성기의 성숙, 2차 성징의 출현, 성적 충동의 증가 등을 볼 수 있고, 여자의 경우 유방의 돌출, 피부지방의 증가로 인한 여성적 피부와 매력적 몸매, 초경의 시작 등 신체적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이러한 신체·생리적 특성은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²⁾

첫째, 유아기나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는 자신의 신체변화에 대해 자각을 하게 되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둘째, 자신의 신체변화와 친구들의 변화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발달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게 되고 심지어는 신체적 열등감을 갖기도

2) 홍봉선 외 1인(2006), 『청소년 복지론』 양서원, p 22

한다. 이렇게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청소년의 성격이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비만이나 작은 키는 청소년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 중의 하나이다.

셋째, 성호르몬의 분비는 성적 욕구의 발달을 동반하며 성적 욕구는 죄의식과 충동 조절의 문제를 초래한다. 청소년들이 성에 관심을 가지거나 성적 욕구를 갖는 것은 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는 청소년기에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수치심, 죄책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성적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임신, 근친상간, 이상성행위, 성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 인지적 특성

인지란 알아 가는 것의 과정으로서 지각, 이미지, 개념 형성, 사고, 판단 그리고 상상력이 포함된다. 인지능력은 자아정체감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지 발달 이론가인 피아제는 출생 후부터 지적능력은 계속해서 발달하며 친구·성인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적 능력은 차이가 난다고 보고 인지발달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청소년기를 인지발달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로 규정하고 이 시기는 가설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 추상적 사고 등 사고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 넓고 풍부하며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보았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변인을 추출하고 분석하며 상호 관련짓고 통합하는 결합적 분석과 구체적인 대상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형식논리에 의해 사고를 전개하는 추상적 추론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가 청소년기 학생에게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면에 인과관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미래를 생각하게 됨

으로써 불안을 느끼고 혼란을 느끼게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청소년은 세상의 모순을 발견하고 현실적인 문제와 실제적인 사회변화의 장벽에 부딪히는 좌절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사고와 감정을 구별하지 못하는 학생의 자아중심성을 부추기게도 된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역할이나 관계는 물론 생각, 감정, 의도 등을 관찰하고 추론하고 개념화하는 능력을 가지면서 타인의 사고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사회인지의 독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인지 발달은 청소년의 심리와 행동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첫째, 자아정체감이 형성, 발전하는 동시에 정체감 형성의 위기를 경험한다. 정체감형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미래의 전망에 대하여 불안해지고 이에 대처할 자신의 잠재력에 자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에게 부과되는 역할로부터 도피하거나 때로는 반발함으로써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³⁾

둘째, 자아 중심적이다.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혀 보편적인 세계의 존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는 착각에 빠지게 되며, 타인도 자신과 동일한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강한 자아중심성을 보이게 된다. 청소년이 보이는 자아중심성은 대표적으로 개인적 우화와 가상 청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적 우화현상에 의한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은 자신을 특별한 예외의 존재로 생각하고 무모한 행동을 서슴없이 함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하게 한다. 이러한 개인적 우화현상은 현실 검증 능력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며, 타인과의 친밀관계를 정립하게 되면 사라지게 된다. 즉, 청소년들은 상상의 관중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마치 무대에 선 배우처럼 모든 사람이 관심을 기울인다고 믿기 때문에 지나치게 외모에 관심을 두고 자의식이 강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남들이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기에 자신한테만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3) 홍봉선 외 1인(2006), 상계서, p 23

고 생각하여 오토바이 폭주, 무모한 운전, 혼전 성관계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도덕성의 발달이다. 도덕성이란 인간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판단이다. 청소년들은 인지적 성숙과 자아의 발달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도덕적 개념을 스스로 형성해 나간다. 그러므로 타인 특히 성인의 선악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기 나름대로 선악의 개념을 형성해 나간다. 그들은 높은 이상을 갖고 있고, 자신의 이상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며,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자신의 표준에 따라서 행동하고자 한다. 그러나 성인들이 도덕적 표준과 사회적 규준이 자신의 도덕적 표준 또는 이상에 비추어 모순된다거나 성인들이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성인사회에 강한 반항과 도전의식을 가지며, 자신들이 사회를 재건하여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⁴⁾

(3) 정서적 특성

정서란 일반적으로 어떤 자극에 의하여 개인의 내부에 일어나는 강한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자아체험을 통해 각종 생활감정이 발달하는 청소년기에 정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과다한 과업으로 인해 감정적 기복이 강하고 불안정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한다. 청소년기에 보이는 정서적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청소년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은 다음과 같다.⁵⁾

첫째,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예민하다. 사소한 일에 예민하고 쉽게 우울하며 낙담에 빠진다. 화를 잘 내기도 하고 불안정하게 보인다.

둘째, 수줍음이 많다.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이 자유롭지

4) 오윤선((2007), 『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예영, p 182

5) 홍봉선 외1인(2006), 상계서 p 24

못하고 특히 이성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낀다. 그러나 종종 수줍음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과장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셋째, 열성적이며 호기심과 모방성이 강하다. 어떤 일에 쉽게 흥분하며 현실감을 잃고 곧잘 열중해서 그 일에 빠진다. 또한 자신의 관심사를 가정에서 지역 사회로 확대시키기 시작함으로써 귀가시간이 늦고 외출이 잦으며 특히 우상을 만들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도 있다.

(4) 사회적 특성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개별화 되어 동성이나 이성친구 등 또래집단에 몰두하고 서로 간에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심리적·사회적 지지를 얻는다. 하지만 이 시기에 또래 친구들로부터 이러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자아상과 사회적 거부와 고립감을 갖게 된다.

3) 청소년기의 문제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과도기적’ 성격으로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특성을 갖는다. 그들의 생활공간은 가정, 학교, 친구, 사회 등으로 확대 되어 가기 때문에 이질적인 집단 및 가치와 접촉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 요인이 작용하므로 다양한 문제와 함께 사회적 일탈과 비행에 빠질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1) 우울증

청소년기 우울증은 성인 우울증과 달리 명확한 우울감이나 생리적 증상보다는 가면 우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주로 행동화, 과잉 운동, 파괴성, 공격

6) 김선현(2007), 『마음을 읽는 미술치료』, p138-141

성 비행, 친구 관계 약화, 무단결석, 학교 거부증, 가출, 성적 저하, 신체증상, 분노, 공포 등으로 위장되어 나타난다.

우울증에 빠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성적이 떨어진다. 자신의 생활이나 취미, 친구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린다. 우울하고 초조해하다가도 작은 일에 화를 내고, 때로는 쉽게 흥분하기도 한다. 나름대로 우울증에 벗어나기 위해 술이나 담배, 약물 등을 접하지만 심한 경우엔 자살 충동도 일으킨다.

(2) 불안

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정신과적 장애로 불안과 우울 등을 동반한 적응장애이다. 청소년기에는 입시병, 고3병이라고 불리는 시험과 관련된 불안이 많이 나타난다. 불안한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두통, 현기증, 식욕 부진, 시력 장애, 기억력 장애, 불면증, 우울 등의 정서 문제가 나타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심한 불안을 동반한 다른 정신병으로 발전된다. 학교 다니기를 거부하고 가출, 비행, 약물 복용, 자살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섭식장애

먹는 데 큰 문제가 있는 신경 정신과적 장애이다.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먹은 것을 일부러 토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식사 행동을 보이고, 체형이나 체중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특징을 가진 장애를 말한다.

(4) 성 문제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갖기 쉽다. 더구나 진학이나 취업 때문에 집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극심한 고독감을 느껴서 타인과, 특히 이성과의 밀착된 관계를 원하게 된다. 요즘에는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의 성 문제도 그만큼 시기가 빨라졌다. 비록 신체적으로는 성 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고는 하나, 심리적·사회적으로는 준비가 안

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무분별한 성행위, 성폭력, 혼숙, 10대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병 등은 청소년 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5) 약물 남용 및 의존

청소년기에 음주, 흡연,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 환각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본드나 부탄가스 같은 흡입제는 정신 활성 작용을 하는 다양한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중추신경계에 대한 억압 작용으로 자기 억제력의 상실, 도취감, 어지러움, 기억상실, 집중력 결여, 혼돈, 간질 발작과 같은 증세를 유발한다. 심지어 간, 심장, 신장 및 골수에 치명적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학업 성취의 동기가 낮고 지나치게 독립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6) 자살

심리 사회적 요인인 스트레스 환경, 즉 부모의 학대, 무관심, 혼란스런 가정 환경, 부모불화, 친구 관계의 어려움, 성적과 입시 부담, 폭력 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방어로 나타나기도 하며, 자기 처벌 또는 환경에 대한 분노, 보복 심리 등으로 자살이 유발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는 가정, 학교 또는 주변 환경 및 또래 집단에서 심리적·정서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비행, 가출, 폭력, 자살 등 다양한 문제 행동을 표출한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영역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가정과 학교, 사회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⁷⁾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냉담함, 결여된 동정심, 낮은 자기 통제력 등을 들 수 있고 공격성, 충동성 등이 나타난다.

7) 이선경(2009) 「치료적 관점에서의 청소년 미술교육」,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2

자존심이 손상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폭력을 동반하기도 하며 자아가 약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아를 인정해주는 불량 또래 집단과 유대감을 느끼며 비행에 가담하기 쉽다. 자아 통제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낮은 학업 성취,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 사회적응력의 미숙, 문제 해결능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유해 환경을 들 수 있다. 교사에 대한 불신과 반항, 교사의 공부 압력, 학업에 대한 거부감 등이 청소년 문제 행동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여러 유해 환경의 노출과 마스크의 폭력 미화주의나 쾌락적 사고에 익숙하게 하여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합리화 시키거나 미화시켜 문제 행동을 하는지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2. 미술치료의 이해

1) 미술치료의 개념

미술치료는 19세기 후반 산업화의 발전으로 노동과 생산형태가 변하면서, 인간 개인의 생활양상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인간성까지 변질되어 가는 사회적 현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세기 초반, 독일의 정신병원 의사들이 환자에게 적용한 미술활동을 통해 환자치료에 미치는 예술적·정신적 효과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작되었다.

미술 분야에서는 미술이 ‘인간을 위한 예술’로서 치유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게 되며, 미술치료라는 독립된 영역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미술치료는 심리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의 한 영역인 미술활동, 즉 그림, 조소, 디자인, 서예, 공예 등 미술의 전 영역을 치료적으로 활용하여 자아표현, 자아수용, 통찰에 의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인간의 문제행동이나 잠재적

문제행동을 제거 또는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적응, 성숙, 발달을 도와주는 심리 치료의 한 분야이다.⁸⁾

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42년 결핵요양소에서 동료환자들과 함께 치료 작업을 시작했던 영국의 미술가 아드리안 힐 (Adrian Hill)에 의해 유래된 것으로, 1961년 『Bulletin of Art therapy』의 창간호에서 울만이 처음 사용하였다. 울만(ulman, 1720-1772)은 ‘미술치료는 교육·재활·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든 간에 공통된 의미는 시각예술을 활용하여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정의하고, 미술치료라는 용어를 분석하여 ‘미술’과 ‘치료’라는 두 영역의 만남으로 해석하였다.⁹⁾

미술치료는 ‘미술’과 ‘치료’라는 두 영역이 결합된 것으로 미술과 치료가 지니는 각각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술치료에서 ‘미술’은 한 개인의 정신세계를 바탕으로 한 창작과정의 소산물이라는 점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창작과정을 통해 작품에 내포된 심리상태와 상징성을 더 중시한다. 미술치료에서 ‘치료’는 창작활동을 통해 그 증상이 경감되도록 지원하는 행위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내용을 성실히 들어주고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창작방법을 활용, 증상의 치유나 경감이 되도록 유도해 주는 것, 전인격적 개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정신 성장과정을 촉진하게 도와주는 것, 보다 건전한 성격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주는 것, 남의 감정에 대해 이해심이 증진되도록 도와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¹⁰⁾

따라서 미술치료는 ‘미술’과 ‘치료’라는 두 가지 영역이 결합하여 미술이라는 매개를 이용하여 심리적인 적응과 치유를 돕는 활동이며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미술로 나타내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미술활

8) 정현희(2010), 『청소년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p 15

9) 김선현(2010), 『청소년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이담, p 33

10) 정은영(2001), 「미술교육을 통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미술치료」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동을 통해 정신적으로 승화 되는 과정이 진정한 미술 치료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미술과 치료의 결합으로 탄생한 미술치료는 치료를 중시하는 입장과 미술을 중시하는 입장, 미술과 치료의 두 측면을 중시하는 통합적 입장으로 학자들 마다 각기 다른 견해 속에서 발전해 왔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움버그(Naumburg)는 ‘치료에서의 미술’로 치료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했다. 나움버그는 환자의 무의식적 사고와 감정이 그림에 직접적으로 표현되기에 그림을 환자가 자신의 내적 상태를 표현한 상징적인 언어로 보았다. 그림과의 대화를 중요시하였고, 미술작품이 환자가 내면을 통찰하는데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림에 나타나는 전이 관계도 다루었다. 즉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형성, 전이와 역전이의 해결, 자유연상, 자발적인 그림 표현과 해석, 그리고 그림의 상징성을 중시하는 그녀는 ‘미술’을 심리치료의 매개체로 인식했다.

둘째, 크래머(Kramer)는 ‘치료로서의 미술’로 미술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크래머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했으며 승화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는 아동 환자가 미술활동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갈등을 표출하고 파괴적 에너지를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가에 주목하였다. 즉, 미술활동을 통하여 환자는 자신의 파괴적, 반사회적 에너지를 분출함으로써 그러한 에너지를 감소시키거나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환자는 미술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원시적 충동이나 환상에 접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을 재 경험하여 그 갈등을 해결하고 성격의 통합을 이루게 된다고 보고 미술 창작과정 자체가 치료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셋째, 울만(Ulman)이 주장한 통합적 입장으로 치료와 창조 두 측면을 다 중시하는 입장이다. 울만은 나움버그의 치료를 중시하는 입장과 크래머의 미술을 중시하는 입장과 더불어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적 틀에서 인간의 내적

갈등과 승화라는 중요한 두 개념을 미술치료에 도입했다. 올만은 환자의 작품이 예술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보다는 대상에 따라서 상동적 또는 강박적 표현도 허용되어야 하고, 때로는 예술적 성취감도 중시하여, 미술치료는 치료적 측면과 창조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위와 같이 학자들 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공통된 부분은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술활동을 통해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와 자기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2) 미술치료의 가치

미술치료는 언어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 시각 매체를 통하여 내담자 스스로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던 마음 뿐 아니라 모르는 마음에 숨어있는 자기 힘을 발견케 한다. 이를 통하여 인간은 그의 내면에 왜곡, 상실, 억제되었던 부분을 재발견하고 통합시킴으로써 인격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독특한 가치를 지닌다. 미술치료의 장점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의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¹⁾

첫째, 미술은 심상의 표현이다.

우리는 언어보다 먼저 심상으로 사고하는 경우가 많다. ‘선생님이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가 주어졌다면 선생님에 대해 언어적 사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생님의 심상이 먼저 떠오른다. 심상 형성에서는 삶의 초기 경험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형성된 심상은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적 치료법에서는 꿈, 환상, 경험이 언어로 해석되는데 반해, 미술치료에서는 심상으로 표현된다.

둘째, 미술은 방어가 감소된다.

11) 정현희(2010), 『실제 적용 중심의 미술치료』, 학지사, P 20~23

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방어다. 언어는 주로 의식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이성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이성적 통제를 언어보다 덜 받는다. 예상치 않았던 표현이 미술작품에 나타나며, 치료 대상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다. 이는 치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상치 않았던 표현과 이 표현에 대한 인식은 통찰, 학습, 성장으로 나아가는 촉매가 되기도 한다.

셋째, 미술은 구체물이 형성된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 볼 수 있는 자료가 형성된다. 미술의 이러한 면이 치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치료대상자가 만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치료자와 치료대상자 사이에 다리가 놓인다.

저항이 강한 치료대상자들의 감정이나 사고 등도 그림이나 조소를 통해 구체화된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고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 어떤 대상자는 단 한 번의 작품에서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 저항이 강한 사람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넷째, 미술은 자료의 영속성이 있어 자신을 회상할 수 있다.

미술작품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대상자가 만든 작품을 필요한 시기에 재검토해 볼 수 있다. 때로는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기도 하며, 대상자 자신이 이전에 만든 작품을 다시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회상하기도 한다. 미술작품은 주관적인 기억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작품 변화를 통해서 치료의 과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치료 팀의 회의에서도 작품을 통해 치료대상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다섯째, 미술은 공간성을 지닌다.

언어는 일차원적 의사소통 방식이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이야기해 나간다. 그러나 미술표현은 본질적으로 공간적이기에 인물들, 상황, 상호 간의 관계 특성이 한 공간에 표현되어 있다.

여섯째, 미술은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한다.

미술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신체적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대상자가 미술활동을

진행하고 감상하고 토론하고 정리하는 시간에 활기찬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체내의 에너지 수준이 변화한다는 것을 느끼는 대상자도 많다. 미술활동은 단순한 신체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미술치료는 제한점도 있고, 아직도 연구되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지만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오늘날 학문적이나 임상적으로 전문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는 1960년대에 미술치료가 전문적인 양상을 보이며 미술치료학회가 창립되면서 미술치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또한 일본과 한국 등에서도 정신병원의 환자를 중심으로 미술치료가 시작되어 왔고 일본의 경우 1984년에 일본 가족화연구회를 창립한 이후 학회를 설립하여 미술치료의 다양한 기법연구 등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주요 미술치료학회가 창립되면서 미술치료의 학술연구나 기법, 프로그램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현재 각종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상담소, 재활센터, 병원, 자기 성장 프로그램 등에서도 널리 적용되며 발전하고 있다.

3) 미술치료의 매체

매체(medium)는 영어 media의 복수형으로서 라틴어로 ‘중간의’를 나타내는 medius에서 유래되었으며, 매체 또는 수단으로서 어떤 의사나 사실을 전달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미술영역에서는 회화, 조각 등 예술표현의 수단 혹은 수단에 쓰이는 재료를 말하는데 미술치료에서 미술매체의 활용은 내담자의 개별적인 심리, 발달 상태, 선호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즉, 내담자의 인지적 능력이나 상징화 능력에 따라 미술매체의 적용이 달라진다.¹²⁾ 이러한 미술표현에 직접 쓰는 미술매체는 크게 작업 형태에 따라

12) 이근매·최인혁(2009), 『매체경험을 통한 미술치료의 실제』, 시그마프레스, p 2, 12

바탕재료인 화지, 채색 재료인 2차원 매체, 조소재료인 3차원 매체 구분할 수 있는데 매체의 종류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매체의 종류

| 매체의 분류 | | 종류 |
|------------------|------|--|
| 화지(바탕재료) | | 한지, 화선지, 도화지, 장지, 섬유, 색종이, 화장지, 신문지, 골판지, 모눈종이, 하드보드지, 포장지, 셀로판지, 사포, 컴퓨터 용지 |
| 2차원 매체 (채색재료) | 건조매체 | 파스텔, 오일파스텔, 크레용, 연필, 색연필, 수성 색연필, 사인펜, 목탄, 콩테, 마커펜, 볼펜, 분필 |
| | 습식매체 | 수채화물감, 아크릴 물감, 유화 물감, 포스터 칼라 물감, 구아슈, 마블링 물감, 먹물 |
| 3차원 매체 (조소재료) | 건조매체 | 발포석고, 벽돌, 아이소핑크, 우드락, 폼보드, 다양한 목재, 비누, 선재(철사, 노끈, 모루, 리본끈), 재활용품, 돌 |
| | 습식매체 | 점토, 찰흙, 풀물감, 종이죽, 유토, 컬러 클레이, 석고 붕대와 석고 |
| 도구 | | 붓, 팔레트, 화관, 물통, 이젤, 풀종류, 테이프, 지우개, 각종 공예용구 세트, 가위 |

미술매체는 개인의 심리를 촉진하거나 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물기가 있는 습식매체는 심리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건조매체는 심리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자기통제의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의 경우 높은 통제력을 지닌 재료인 연필, 색연필 등과 같은 매체가 행동을 통제 가능케하여 행동조절에 도움을 주며 경직된 내담자의 경우는 물감, 핑거페인트, 물기가 많은 점토 등으로 퇴행을 촉진시킨다.

랜드가르텐(Landgarten,1991)은 미술치료에서 매체는 창의성의 기능과는 별도로 매체 자체의 목적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한다. 랜드가르텐에 의하면, 매체는 내담자의 정서 상태를 상승시키거나 가라앉게 하며,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끼

치고 방어기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미술치료사는 적용하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랜드가르텐은 매체가 지닌 통제력과 비통제력을 10가지 범주로 나누어, 가장 통제가 약한 것부터 아래로 갈수록 통제가 강한 것을 제시하였는데 랜드가르텐이 제시한 미술매체의 특성은 <표 2>과 같다.¹³⁾

<표 2> 미술매체의 특성

| ←가장 낮게 통제 | | | | | 가장 높게 통제→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젖은 점토 | 그림물감 | 부드러운 점토 | 오일 파스텔 | 두꺼운 펠트지 | 폴라주 | 단단한 점토 | 얇은 펠트지 | 색연필 | 연필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표현에 쓰이는 매체는 다양하다. 이러한 매체의 선정과 활용방법은 개인의 심리를 촉진하거나 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표현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치료사는 매체의 특성과 사용법, 매체의 장단점 등을 잘 파악하여 대상에 맞게 적합하고 안정된 재료를 선정하여 치료대상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고 풍부한 내면의 표출을 유도해야 한다.

4) 미술치료 기법

미술치료 기법에는 치료를 위한 기법과 진단을 위한 기법으로 크게 나눌 수

13) 김성숙외 9인(2009),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p 406

있다. 한국미술치료학회의 문헌을 중심으로 그 기법에 대한 내용을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¹⁴⁾

<표 3> 미술치료 기법

| 진단 도구로서의 미술치료 기법 | 치료로서의 미술치료 기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화 성격 검사 • 집-나무-사람 검사 • 동적 집-나무-사람 검사 • 나무 그림 검사 • 동적 가족화 검사 • 풍성구성 검사 •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 검사 • 콜라주 검사 • 동적 학교생활그림 검사 • 자유화 검사 • 빗속의 사람 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화 상호 이야기법 • 콜라주 기법 • 만다라 그리기 • 핑거페인팅 • 테두리법 • 소조 활동법 • 습식화 • 출발용지 • 신체 본뜨기(신체 손 본뜨기법) • 협동화 기법 • 데칼코마니 • 감정차트 만들기 • 역할 교환법 • 자아감각 발달법 • 과거, 현재, 미래 나타내기법 • 자기 집 평면도 |

가. 진단 도구로서의 미술치료 기법

그림은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며, 비언어적 수단으로 내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 그림은 심상의 표현으로 그림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무의식을 쉽게 드러낼 수 있기에 언어로 표현하긴 힘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림은 내담자 생활경험과 자신의 욕구와 환경에 대한 태도를 표현

14) 한국미술치료학회(2000),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p 445~466

하는 투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림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진단이 가능하게 된다.

진단을 위한 그림검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물화 성격검사, 집-나무-사람 검사, 동적 집-나무-사람 검사, 나무 그림 검사, 동적 가족화 검사, 풍경구성 검사,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 검사, 콜라주 검사, 동적 학교생활그림 검사, 자유화 검사, 빗속의 사람 검사를 중점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인물화 성격검사 (DAP : Draw A Person Test)

인물화 성격검사는 개인의 성격이나 정서, 갈등 등이 투사되고 그려진 인물상은 자아상을 반영한다. 때로 그리는 사람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내용이 투사되어 그림에 드러나기도 한다. 이를테면 우울 뒤에 감춰진 공격성이라든지 자기 파괴적 욕구나 충동적 경향성, 자신감이 없거나 자존감이 낮은 것, 현실감 증력이 미약한 것 등이 표현된다.¹⁵⁾

▶ 준비물 : A4용지, 지우개, 연필

▶ 실시방법

- ① 흰 종이를 주고 “사람을 그려 보세요. 전신상을 그려 보세요.”라고 제시한다.
- ② 어떤 인물상을 그린 후에는 처음에 그린 상과 다른 이성 상을 그리게 한다.
- ③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는 인물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분은 어떤지, 성격, 장래의 희망, 장점, 단점 등 그린 사람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질문을 한다.

▶ 진단과 해석

15) 주리에(2010), 『미술치료 요리책』,아트북스, p 152

인물화는 그림의 형식, 그림의 선, 그림의 내용 등의 차원에서 해석된다. 그림의 형식에는 그림의 크기, 인물화의 순서, 그림의 위치, 인물의 동작, 신체의 왜곡이나 생략 등이 있으며 그림의 선 차원에는 선의 성질이나 강도 등이 있다.

(2) 집-나무-사람 검사(HTP : House-Tree-Person Test)

집-나무-사람 검사는 내담자의 성격, 성숙, 발달, 융통성 등의 통합 정도와 현실에 주어지는 문제해결 능력, 환경과의 상호작용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집-나무-사람 검사는 누구에게나 친밀감을 주는 과제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자유스러운 언어표현을 시킬 수 있는 자극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진단도구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치료 전의 상태와 치료 후의 상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¹⁶⁾

▶ 준비물 : A4용지, 연필, 지우개

▶ 실시방법

- ① 한 장의 종이에 하나씩 모두 4장의 그림을 그리게 하되 각자가 생각한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도록 설명한다.
- ② (1번 종이를 제시하며) “이 종이에 집을 그리십시오.”
- ③ (2번 종이를 제시하며) “이번에는 나무를 한 그루 그려 보십시오”
- ④ (3번 종이를 제시하며) “이번에는 사람을 한 명 그려 보십시오, 전신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때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물어서 기입한다.
- ⑤ (4번 종이를 제시하며) “이번에는 남자(혹은 여자 : 먼저 그린 인물과 반대되는 성)를 한 사람 그려 보십시오. 전신을 그리는 것입니다.”

(3) 동적 집-나무-사람 검사(KHTP : Kinetic House-Tree-Person Test)

동적 집-나무-사람검사는 집, 나무, 사람을 한 장의 종이 위에 모두 그리게 하여 세 가지 대상 간의 역동적 관계를 파악하고 내담자의 깊은 내면의 상태

16) 김선현(2010), 상계서, p 45

를 이해하려는 검사이다.

▶ 준비물 : A4용지, 연필, 지우개

▶ 실시방법

준비한 도화지를 가로로 제시하며 집을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의 전체모습을 그리도록 한다. (만화 혹은 막대 인물상으로 그리지 않도록 지시한다.)

▶ 진단과 해석

이 그림의 해석은 전체적 평가와 형태적·내용적 분석으로 구분한다. 전체적인 평가는 그림의 부분적인 요소, 전체적인 분위기, 조화, 구조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관계, 신체에 대한 왜곡, 적응력을 파악한다. 형태적 분석은 그림의 필압, 위치, 크기, 음영, 지우개의 사용정도, 운동성 등을 통해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내용적 분석은 어떻게 그렸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그렸느냐가 중요하게 다뤄지며 이 그림이 표현하는 특징적인 신호는 무엇인가를 살펴야 한다.

(4) 나무 그림 검사(Tree-Test)

나무 그림 검사는 나무가 특정의 인물을 상징하며 그 사람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감정과 욕구를 나타낸다는 가정, 특히 자기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¹⁷⁾ 내담자에게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 그리게 한 뒤 완성된 나무 그림을 통해 심리적 상태를 찾아내려는 기법으로 대체로 그림을 분석할 때는 나무의 줄기, 뿌리, 잎, 가지, 열매 그리고 전체적인 인상 등을 기준으로 분석된다.

(5) 동적 가족화 검사(KFD : Kinetic Family Drawing Test)

동적 가족화 검사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내적인 상이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검사이다. 즉, 가족 내에서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물, 혹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에 대해 자신이

17) 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상계서, p 523

느끼는 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난다. 또한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힘의 분포, 친밀감 및 단절감과 같은 가족 내 역동성을 그림을 통해 엿볼 수 있게 된다.¹⁸⁾

▶ 준비물 : 4용지, 연필, 지우개

▶ 실시 방법

- ①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 전원이 나와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그림을 그리게 한다. 만화나 막대기 같은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을 그릴 것을 설명한 후 무엇이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림이어야 하며 자신도 꼭 그려야 한다는 것을 지시한다.
- ② 완성 후에는 인물상을 그린 순서, 그 각 인물상이 누구인가, 연령, 무엇을 하고 있는가 (행위종류), 가족 중 생략된 사람이 있는가, 가족 외 첨가된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하여 용지의 여백에 기입한다.

▶ 진단과 해석

인물상의 행위(가족의 직업, 취미, 가정에서의 역할)와 그림의 양식(구분, 포위, 가장자리, 인물상선, 인물하선 등), 상징, 그림의 역동성(그려진 순서와 크기, 인물의 거리, 방향, 생략 등), 상징(공, 빗자루, 신문, 책, 칼, 비행기, 난로, 강 등), 인물상의 특징 등으로 크게 나누어 분석 한다. 그림의 양식에서는 구분은 가족을 선이나 사각형으로 구분하여 고립을 나타낸 것을 말하고 포위는 주로 책상, 그네, 줄넘기, 자동차 등으로 특정인물을 둘러싼 것을 말한다. 인물상의 행위에서는 대체로 아버지, 어머니, 자기상의 행위를 중심으로 분석 하는데 부모상과 자기상의 그림에서 건강하게 내재된 그림과 건강하지 않게 내재된 그림의 특징을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다.¹⁹⁾

18) 신민섭(2002),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학지사, p 179

19) 이선희(2009), 「중학교 미술수업에서 미술치료의 활용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6 .

<표 4> 내재화된 부모상과 자기상의 그림 특징

| 건강하게 내재된 그림 | 건강하지 않게 내재된 그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의 인물상이 생략되거나 왜곡되어 있지 않다. ·신체 각 부위가 적당한 크기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화목한 얼굴표정을 보인다. ·자신의 상이 중심에 있고, 통제되고 있다. ·인물상의 상호간에 지나치게 접촉되어 있지 않고 적당히 떨어져 있다. ·부모상이 대조적으로 위치하고, 자신의 상에 인접하는 쪽의 신체적 왜곡이 없다. ·이상적으로는 부모상은 자신의 상을 부상 시켜 바로 보고 있다. ·주위의 상징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살고 싶은 세계가 그려져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상의 신체 각 부위가 생략된 사람 ·인물상의 지나친 크기 및 왜곡 ·화목하지 않은 얼굴표정이나 생략 ·부친상과 모친상이 중심부에 있거나 중심부가 비어 있다. ·인물상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부모가 자신을 보지 않고, 눈이 없거나 앞만 보고 있다. ·주위의 상징들이 부정적이다. ·살고 싶지 않은 듯한 세계를 그리고 있다. |

(6) 풍경구성 검사 (LMT : Landscape Montage Technique Test)

풍경구성검사는 도화지에 산·강·길·집·나무·사람·꽃·돌·등을 치료자가 제시하여 각각의 주제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의미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청소년들의 내적 상황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

▶ 준비물 : A4용지, 흑색사인펜, 크레파스 또는 색연필

▶ 실시방법

- ① 치료사가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그려 내담자에게 제시한 후 10의 항목(강, 산, 밭, 길, 집, 나무, 꽃, 동물, 돌)으로 하나의 풍경을 만든다는 것을 설명한다. 10가지 요소를 차례대로 불러주고 마무리로 추가로 더 그리고 싶은 사물들을 더 넣어 색칠 한다.
- ② “지금부터 풍경을 그릴 거예요. 잘 그리는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려 주세요. 단 내가 불러 주는 순서에 따라서 그려 주세요.”
(강→산→밭→길→집→ 나무→꽃→동물→돌)
- ③ “다 그렸으며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나 더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서 풍경을 완성시켜주세요”
- ④ 풍경화가 완성된 후 12개 내지 24색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제시하고 “자, 이제 색칠해 주세요.”
- ⑤ 색칠 후의 질문 한다. (“어느 계절입니까?, 몇 시경입니까?, 기후는 어떠한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령은? 성별은?” 등에 대해 질문한다.)

▶ 진단과 해석

그림의 각 요소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요소가 자신의 내면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요소이다. 풍경구성 검사의 각 소재의 상징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표 5>와 같다.²⁰⁾

<표 5> 풍경구성 검사의 각 소재의 상징과 의미

| 소재 | 상징과 의미 |
|----|---|
| 강 | 무의식의 흐름을 상징한다. 그림의 1/2, 2/3이상 넘어가면 무의식의 세계에 잡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무의식에 세계에 잡혀있다는 것은 갈등이 야기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0) 이선희(2009), 상계서, p 25

| | |
|------|--|
| 산 | 산은 넘어야할 문제, 갈등의 수를 말한다. 크기, 모양, 수를 주위 깊게 살펴야 하는데 크기가 매우 크다면 큰 고민이 있는 경우이며, 모양에 따라 너무 끝이 날카롭다면, 매우 힘든 상태를 이야기하며 등근 경우 힘들어도 나름대로 잘 넘어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
| 밭(논) | 밭은 일, 현재 놓여 있는 상황,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밭의 상태는 일의 시작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밭에 과실이 열려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일의 수확의 상태를 의미한다. |
| 길 | 의식세계의 진로나 인생의 길을 뜻한다. 길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면 현재 평탄히 걸어가고 있다는 말이며, 산처럼 위험하거나 힘든 곳으로 이어져 있다면, 애써 힘든 길로 올라간다거나, 미지의 세계로 가고자 함을 뜻한다. |
| 집 | 살아온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다. 가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집은 내담자가 꿈꾸는 가정일 수도 있으며, 집의 수가 많다는 것은 여러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음을 뜻한다. |
| 나무 | 성장, 성취의 욕구를 뜻한다. 수와 크기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 된다. |
| 사람 | 자신의 신체상, 자아상을 뜻한다. |
| 꽃 | 사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은 애정의 욕구를 뜻한다. 꽃의 수나 크기에 따라 미의 추구, 애정의 욕구가 나타난다. |
| 동물 | 내담자의 질문이 필요하다.(내담자의 성향을 나타낸다) |
| 돌 | 장애물을 뜻한다. 크기와 위치가 중요한데 밭에 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현재 일에 걸림돌 즉 장애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

(7)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 검사(FCCD : Family Centered Circle Drawing Test)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 검사 인간은 정서적으로 초점을 모으게 되면, 인간에 대한 통찰이 생기고 치료가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검사용지 중심에 그려진 원 안에 그림을 그리게 한다. 그리고 각 인물은 그 인물 주위에 그려진 상징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상징은 시각적인 자유연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상징에 추상된 사고와 정서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내재되어 있는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를 보고, 그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는 방법이다.²¹⁾

(8) 콜라주 검사(Collage Test)

콜라주 검사는 잡지나 신문 등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나 내용을 붙여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쉬게 표현할 수 있어 감정전달이 용이하고 미술 활동에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녀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9) 동적 학교생활그림 검사(KSD : Kinetic School Drawing Test)

동적 학교생활그림 검사는 학교 상황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학교 적응과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준비물 : 4용지, 연필, 지우개

▶ 실시방법

- ① 자신을 포함하여 선생님과 한명 이상의 친구가 학교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지시한다.

21) 권준범(2002), 「미술심리치료 검사를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44

▶ 진단과 해석

동적 학교생활그림 검사의 경우 다른 검사와 달리 뚜렷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내담자가 그린 그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을 그린 후 그림을 그린 순서와 그림 속의 인물이 누구이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기록한다. 그 다음 순서로 그림을 보고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10) 자유화 검사

자유화 검사는 주제를 따로 정해 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는 방법으로 지시나 제한을 최소한으로 주므로 청소년의 반응 폭과 선택이 잘 드러나게 된다. 또한 자유화 검사는 다른 투사적 기법들에 비해 청소년의 성격과 생각, 관심사를 더 직접적으로 표현 가능하게 하며, 때로 매우 개인적인 경험을 드러내게도 한다.

(11) 빗속의 사람(PITR : Person in the Rain)

빗속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리도록 하는 검사로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된다.

▶ 준비물 : 도화지, 사인펜, 색연필, 크레파스

▶ 실시 방법

빗속의 사람을 그리게 한다. 비가 내리는 장면을 첨가한 것으로 빗속에 그려진 사람은 자화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 비는 어떠한 외부적 곤경이나 스트레스 환경을 상징한다. 우산, 장화 등이 외부의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심적 역량이 있는지를 알려 준다고 본다. 불쾌한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²²⁾

22) 정현희(2010), 상계서, p 319

나. 치료로서의 미술치료 기법

치료로서의 미술치료 기법은 미술작업 과정을 통해 치료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여기서 미술의 치료적 성격이 의미하는 것은 미술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문제 성격이나 행동이 경감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을 통해 한 번도 표출한 적이 없는 감정을 안전하게 발산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불분명했던 생각들을 정리하며 혼란이 정화되기도 한다. 또한 과거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가 자유로이 표출되도록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미술 치료 기법을 한국미술치료학회의 문헌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²³⁾

(1) 난화 상호 이야기법

난화 이야기법은 난화 기법과 이야기법을 응용하여 선을 자유롭게 그린 후 그것을 이미지화하여 그림의 형체를 만들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이야기를 꾸며 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느낀 이미지를 난화에 투사하도록 하기에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다. 난화는 내담자로 하여금 급적거리기를 통해 창조하지 못했던 이미지를 발견하고 그리도록 해주며, 숨어 있는 이미지가 출현하도록 도와준다.

이 기법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과 주제를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난화를 주고받으며 완성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는 놀이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 준비물 : 도화지, 사인펜, 색연필, 크레파스

▶ 실시방법

- ① 치료대상자와 치료사가 책상에 나란히 앉아서 각각 종이 한 장씩 갖는다.
- ② 종이에 난화, 즉 직선, 곡선, 지그재그, 원, 나선 등을 그려 상대방에게 준 후 각자 상대방의 난화를 활용해서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 완성한다.
- ③ 완성 후 각자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나눈다.

23) 한국미술치료학회(2000), 상계서, p 445

(2) 콜라주 기법

콜라주 기법은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술치료 기법이다. 거부의 감소, 분노의 탈출, 희망에 대한 상징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표현이 쉽고 그리는 것보다 정확한 감정전달이 우수하나 선택할 수 있는 사진 매체가 많아야 한다. 자기감정을 나타내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고 싶은 것, 선물주고 받고 싶은 것, 타인에 대한 느낌 표현, 문제의 예방 및 대책방법 등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3) 만다라 그리기

만다라는 원이 지니고 있는 인간의 마음의 전체성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주관 내지는 종교성에 도래한 것으로서 자아정체감 확립이나 심리적 통합에 유효한 기법이다. 만다라 그리기는 원 안에 그림을 그리게 함으로써 집중력과 안정을 주고 환자의 기억과 감정을 통합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청소년기 정서적인 안정과 저항의 감소, 긴장의 이완 등의 효과를 나타내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집단 만다라 벽화그리기 기법은 집단속의 자기이해, 집단이해, 협동심 등을 기른다. 지점토 위에 곡물을 이용한 만다라의 경우 감각을 자극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어 불안장애를 지닌 청소년들에게도 효과적이다.

(4) 핑거페인팅(Finger painting)

핑거페인팅 기법은 주로 미술치료 초기나 말기에 사용하는데, 손으로 자유롭게 그림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과 거부와 저항의 감소, 긴장의 이완 등의 효과를 나타내며, 작업의 촉진,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경직된 청소년에게 적용하면 억제된 내면을 해소시킬 수 있어 좋다.

(5) 테두리법

내담자에게 도화지를 제시하면서 환자가 보고 있을 때 용지에 테두리를 그려서 건네주는 방법이다. 미술활동을 자극하고 공포를 줄일 수 있어 자아가 허약한 청소년들에게 많이 사용된다. 이때의 테두리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또 원을 그려 그 안에 그림그리거나 채색을 하여 과잉행동, 주의 산만 등을 통제할 수 있다.

(6) 소조 활동법

점토로 인물상을 만들거나 자기의 느낌을 표현케 하여 해석하게 한다. 뭍은 점토는 수채물감과 같이 액체도구로서 언어화가 결핍된 내담자에게 유용하며 과도한 언어화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는 감각적 요소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특히 대상관계가 부족한 내담자의 치료에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7) 습식화

습식화는 도화지를 물에 적셔 그 위에 수채화 물감을 떨어뜨려 번지는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서 경직된 내담자들에게 이완의 효과가 있고 내적 활기를 일깨울 수 있는 기법이다. 불안감을 가진 청소년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 효과적이다.

(8) 출발용지(starter sheet)

그림을 그리는데 저항이 있거나 의욕이 없는 학생들에게 미술표현을 자극하고 촉진하기 위해 출발그림 용지를 사용한다. 미술활동에 부담감이나 어려움이 있어 주춤거리고 있을 때 그림그리기를 자극하는데 사용한다.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종이에 치료사가 직접 잡지에서 얼굴사진을 오려 붙여 주거나 그려 준다. 출발용지는 그림 그리는데 저항이 있거나 공포, 수줍음 등을 줄여서 그림 그리기를 자극하고, 촉진하는데 사용한다.

(9) 신체 본뜨기(Body Tracing)

큰 종이를 벽에 붙여 그 위에 내담자를 서게 한 후 몸을 따라 선을 그려 본을 뜬 다음 그 선을 보며 자유롭게 자신이 느끼는 신체에 대해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는 자기 인식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게슈탈트 미술치료의 한 방법인데 신체의 모양을 통한 자아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10) 협동화 기법

협동화 기법은 집단미술치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들이 소집단을 이루어 한 장의 종이에 협동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다. 집단 속에 자기 이해와 집단 이해를 경험하게 하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청소년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이다.

▶ 준비물 : 종이(대상에 따라 적절한 크기), 사인펜, 색연필, 크레파스

▶ 실시방법

주제를 주는 방법과 주지 않는 방법,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방법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다.

원하는 크레파스를 각자 하나씩 선택한 후 그리게 한 후 자발성의 정도, 경험의 표출, 협동성, 그리는 위치와 내용, 그린 순서, 주의력 등을 관찰하여 분석한다.

(11)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는 물감을 종이 한쪽에 짜서 반을 접고 펼친 후 연상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적절한 양과 기법을 적용하면 즐겁게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우연의 효과에 의한 그림은 신선한 상상력을 자극하며, 성취감을 맛볼 수 있고, 연상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봄으로써 내담자의 내면의 흐름을 볼 수 있다.

(12) 감정차트 만들기

감정차트는 도화지에 몇 개의 칸을 구분하여 최근의 감정 기쁨과 슬픔, 분노, 그 밖에 표현하고 싶은 다양한 감정을 그리거나 색으로 표현하거나 색종이를 오려 붙여 자신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시키는 방법이다. 감정차트에는 내면의 감정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한 후에는 모든 인간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칸 없이 한 장의 종이에 표현하거나 스펙트럼 형태의 띠로도 나타낼 수 있다.

(13) 역할 교환법

채색이나 콜라주, 난화, 그림그리기 등에서 내담자와 치료자가 서로 번갈아가며 작품을 제작한다. 화면분할법(종이에 적당한 선을 그어 나눔)과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라포형성이나 거부감 감소, 흥미유발, 촉진 등에 효과적이다.

(14) 자아감각 발달법

자아개념이 부정적일 때 이를 높이기 위해서 출발용지 기법이나 묘화완성법, 손 도장과 발 도장 찍기, 조소활동, 동그라미 기법, 가면 만들기, 손 본뜨기 등 신체를 이용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은 자기 신체를 매우 중요시하고 신체개념이나 신체 이미지로부터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예로 손 본뜨기법은 자신의 손을 도화지에 놓고 본을 뜨거나 석고봉대를 이용해 본을 떠서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장점과 단점을 적거나, 손가락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일을 적어 표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자신에 대해 더 깊은 자각을 하도록 유도하여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나 자기 존중감을 갖게 할 수 있다.

(15) 과거, 현재, 미래 나타내기법

과거와 현재, 미래를 콜라주 사진을 콜라 나타내게 하고, 특히 10년 후 또는 5년 후의 자기의 미래를 표현하게 한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표현하도록 하여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각본을 계획하는데 좋다. 이 같은 방식은 삶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자신의 삶속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상처에 대해 이해하고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에 대해 깊은 인식과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16) 자기 집 평면도

자기 집 평면도 그리기는 어린 시절(가능하면 유아시절)에 자기가 살았던 집의 평면도를 그려서 가장 무서웠던 곳, 비밀장소, 함께 살았던 사람 등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 이를 통해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 성격 형성 등을 발견한다. 부적응행동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 하여 새로운 각본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 미술영역별 미술치료 프로그램

미술치료에서 내담자는 각기 다른 문제성향을 가짐으로 대상의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갈 때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술치료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료기법을 토대로 하여 치료적 미술프로그램을 영역별로 분류해 보고 다양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중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미술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전체적인 영역과 주제를 분류하여 <표 6>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6> 치료적 미술프로그램의 영역별 분류

| 영역 | 프로그램 주제 |
|-------------------|--|
|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 고치에서 나비가 되기까지, 명화 따라 그리기, 가면 만들기, 셀프박스 만들기, 내가 만일 거인이 된다면, 자화상 그리기, 나의 이름, 버리고 싶은 나·간직하고 싶은 나, 씨앗 키우기, 석고봉대 손 본뜨기. |
| 창의성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 달걀판을 이용한 생활미술, 숟가락 모티브 그림, 폐컴퓨터를 이용한 자화상, 병뚜껑을 이용한 조형물, 종이 접기 구성, 강제 결합하기, 물감 불기를 응용한 자유화. |
| 무의식적 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 떡물 난화 이야기 그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난화 그리기, 잉크와 끈으로 난화 그리기, 물감 얼룩 만들기, 만다라 그리기, 떡물난화 그리기. |
| 감정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 세상에 대한 나의 감정 순화하기, 내게 위안을 주는 질감을 통한 감정순화 하기, 감정파이, 나를 나타내는 단어 찾아 표현하기. |
|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 교실풍경, 내친구, 집단 벽화, 나·우리, 가장 중요한 존재, 생각 나누기, 우리의 나무 그리기, 둘이서 그리기. |
| 가족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 가족 벽화 그리기, 가족 관계도 그리기, 가족 신체 그리기, 돌아가며 그리기, 가족 만다라. |

(1)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활용한 미술 창작 활동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케하고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내면의 욕구, 감정을 발산케 하며 스트레스 해소뿐 아니라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자아탐색, 자아인식 등을 통해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자기인식을 돕는 프로그램을 김선현(2007)²⁴⁾과 옥금

24) 김선현(2007), 상계서, p 142~147

자(2007)²⁵⁾의 문헌을 참고로 다음<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7>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기대효과 |
|---------------|---|---|
| 고치에서 나비가 되기까지 | 트리나 폴러스(Trina Paulus)가 쓴 《꽃들에게 희망》의 줄거리를 이야기해준 다음 애벌레 시기(어린 시절)와 번데기 시기(고민과 방황의 시기), 나비 시기(자아실현의 시기)를 각각 생각해보고 표현 한다. | 사람은 운명적인 존재가 아닌 자아실현 능력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임을 인식, 긍정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 |
| 영화 따라 그리기 | 영화 작품 하나를 선택하여 복사한 다음, 복사한 영화에 색을 칠하거나, 잡지나 색종이를 오리거나 찢어서 원하는 곳에 붙여본다. 말풍선을 만들어 영화에서 얻은 느낌을 직접 적어본다. | 영화속의 인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봄으로써 내면의 억압된 감정을 발산. |
| 가면 만들기 | 호일이나 석고붕대를 이용해 원하는 가면을 만든 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원하는 모습으로 완성시킨다. | 자기 동기화 및 표현력 강화, 자아 존중감 향상. |
| 셀프박스 만들기 | 빈 상자를 이용하여 바깥쪽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안쪽은 내가 보는 ‘나’를 표현 한다. | 자신의 내적 욕구에 대한 통찰, 내면과 외면과의 균형 촉진. |
| 내가 만일 거인이 된다면 | 내가 만일 거인이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종이에 그리게 한다. | 성장 욕구 강화. |

25) 옥금자(2007), 『청소년 임상미술치료 방법론』, 하나출판사, p 336~338

| | | |
|------------------------------|---|---|
| 자화상 그리기 | 자신의 내면의 다양한 모습과 표정을 그리거나 꾸며본다. | 자아존중감 향상, 내적 통합. |
| 석고붕대 손 본뜨기 | 자신의 신체 일부인 손의 역할과 자신의 손으로 미래에 하고 싶은 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석고붕대를 이용해 손 본뜨기를 한다. 완성되면 그림을 그리거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표현한다. | 긍정적인 미래 자아상 제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중함 인식. |
| 나의이름 |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콜라주로 표현한다. | 자기 동기화 및 표현력 강화, 자아 존중감 향상. |
| 버리고 싶은 나, 간직하고 싶은 나 |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잡지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이미지를 찾아 붙여 본다. | 자신의 양면성에 대한 통찰, 긍정적인 자아상 향상. |
| 씨앗 키우기 | 씨앗이 갖는 의미와 원리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눈다. 씨앗이 자기라고 상상하며 명상시간을 갖은 후 상상한 씨앗의 결과와 주변 환경을 도화지에 그린다. | 자기 정체성과 자신과 외부체계와의 관계 인식, 성장욕구의 인지와 구체화 시킴. |

(2) 창의성을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청소년기 창의성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사물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 볼 수 있게 하고 적절한 자극으로 창의성을 계발하여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며 긍정적인 자아성취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창의성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김선현(2007)의 문헌 내용을 참고하여 <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²⁶⁾

<표8> 창의성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기대효과 |
|---------------|---|---|
| 달걀판을 이용한 생활미술 | 버려진 달걀판 위에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장식 한다. | 유연성, 독창성, 민감성, 정교성 향상. |
| 손가락 모티브 그림 | 손가락 모티브(손가락이나 손가락이 그려진 그림)를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자유롭게 꾸며서 그려본다. | ‘손가락은 즉, 밥을 떠먹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상상력과 재구성력을 향상시킴. |
| 폐컴퓨터를 이용한 자화상 | 폐컴퓨터 위에 아크릴 물감을 칠해 자화상을 그린다. |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 버린 컴퓨터와 자화상을 결합해봄으로써 인간 소외, 대화 단절, 게임 중독 등의 문제 인식과 자기정서의 이해를 도움. |
| 병뚜껑을 이용한 조형물 | 병뚜껑에 아크릴 물감을 칠해서 꽃무늬 도장을 찍게 한다. | 버려진 병뚜껑을 이용해 예술 작품을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고의 유연성 향상. |
| 종이 접기 구성 | 여러 모양의 딱지를 접은 뒤 자신이 원하는 색을 칠한 후 캔버스에 배열하여 본드로 붙이도록 한다. | 딱지를 예술품으로 승화시킴으로 민감성과 정교성, 재구성력, 독창성 향상 . |

26) 김선현(2007), 상계서, p 147~150

| | | |
|----------------|---|--|
| 강제 결합하기 |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개의 사물을 강제로 결합해서 하나의 사물을 만들어본다. (예를 들어 신발 +바퀴). | 불만을 갖고 있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고 문제 해결 능력 향상. |
| 물감 불기를 응용한 자유화 | 물감을 빨대로 불어 다양한 모양이 나오도록 표현해 보고, 물감이 뿔어 나간 모양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덧붙여 그려 본다. | 물감의 우연적 효과의 경험을 통해 미술에 대한 부담감 감소, 흥미 유발, 창의적 상상력 자극. |

(3) 무의식적 표현 프로그램

무의식적인 그림은 어떤 특별한 주제나 방향이 주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무의식적인 미술은 어떠한 것을 그리겠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제작한 드로잉, 회화, 혹은 그 밖의 모든 미술 형태를 의미한다. 자유연상과 적극적 상상의 결과로 무의식적인 미술활동은 미술치료의 과정에 중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의식의 검열을 받지 않은 상징적 의사소통과 진실한 표현을 모두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무의식적 표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표 9>와 같이 정리하였다.²⁷⁾

<표 9> 무의식적 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기대효과 |
|----------------|--------------------------------------|-----------------------|
| 먹물난화 이야기그림 | 먹물로 난화를 그리고 이미지를 찾아 채색 후 이야기 구성해 본다. | 무의식의 표현, 창의성, 상상력 향상. |
|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 보편적으로 글을 쓸 때 사용하지 않던 손으로 그림을 그린다. | 검열되지 않는 무의식의 표현. |

27) 김정은(2003), 「청소년기의 치료적 미술활동 프로그램 제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7.

| | | |
|----------------|--|-----------------------|
| 난화 그리기 | | |
| 잉크와 끈으로 난화 그리기 | 종이 위에 잉크나 검정 템페라에 끈을 적셔서 선과 형태 만들기를 하고 끌어당긴다. | 감정의 분출, 무의식적 이미지 강조. |
| 물감 얼룩 만들기 | 종이위에 크레파스이나 파스텔을 이용하여 그린 후 물감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얼룩을 만든다. | 창의적이고 이완된 감정의 해방감. |
| 만다라 그리기 | 흰 종이에 컴퍼스나 접시를 대고 연필로 원을 그린다. 원한다면 직접 원을 그릴 수도 있다. 선택한 재료를 가지고 선이나 색, 형태를 어떠한 방식으로 원 안을 메운다. | 자기이해, 타인의 이해, 감정의 이완. |

(4) 감정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기는 일관성이 없고 불안정하며 가정, 학교, 또래 관계와 주변환경 속에서 불안, 우울, 분노,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 등이 크게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내면에 자리잡은 이러한 감정들을 미술 작업을 통해 발산케 함으로 감정을 경감, 해소시키며 나아가 일탈 행동을 미리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감정표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김영민(2004)²⁸⁾과 최외선(2010)²⁹⁾의 문헌을 참고하여 <표 10>와 같이 정리하였다.

28) 김영민(2004), 『스트레스 감소방안을 위한 임상미술치료 실제』, 21세기사, p 216

29) 최외선 외 3인(2010), 『미술치료기법』, 학지사, p 79

<표 10> 감정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기대효과 |
|-------------------------|--|---|
| 세상에 대한 나의 감정 순화하기 | 잡지에서 맨 처음 광고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 이미지를 도화지위에 올려붙이고 그 위에 그림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본다. | 상품화를 통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투영, 사회에 대한 자신의 감정 표현. |
| 내게 위안을 주는 질감을 통한 감정순화하기 | 자신이 가장 편안하고 위안을 주는 그림이나 질감을 선택하여 일정크기의 비형식으로 자른다. 여러 질감을 교차시키고 도화지에서 엮어나간 후 그 위에 기호나 그림을 그려본다. | 자신의 감정 발란스 인지, 자신의 감정 정화. |
| 감정파이 | 평소에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종이에 원을 그린 후 감정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면을 나누어 색칠한다. 각 면에 감정의 이름을 붙인다. | 다양한 감정을 인식과 표현. |
| 나를 나타내는 단어 찾아 표현하기 | 15~25개 정도 제시된 감정 단어를 보고 마음에 와 닿는 단어를 선택하여 그림이나 찰흙으로 표현해 본다. | 감정 탐색과 인식 |

(5) 사회성 증진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청소년은 집단 지향적으로 소속된 집단 내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며 그 집단속에서 영향을 주고 받기에 집단 미술프로그램이 적합하다. 집단 미술 활동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 등 자신에 대한 인식과 수용기회를 갖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기회를 갖음으로 친밀한 상호 관계를 형성케 하여

사회성 발달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여주(2007)³⁰⁾와 옥금자(2007)³¹⁾의 문헌 내용을 참고로 <표 1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1> 사회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기대효과 |
|-----------|---|--------------------------------------|
| 교실 풍경 |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만약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눈다. | 상황 인지, 반칙과 규칙, 왕따 문제 등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
| 내 친구 | 생각나는 친구와 관련된 것들을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려본다. |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인지. |
| 집단 벽화 | 큰 정원을 그림 그리고 함께 꾸며 본다. | 집단의 정체성, 소중함 인식, 집단내의 자기 인식. 협동심 향상. |
| 나, 우리 | 각자 자신에 대한 상징을 그린 후 옆 사람에게 돌린다. 그림의 집단원에 대한 느낌과 칭찬을 그림이나 색, 글로 표현해 주고 다시 옆 사람에게 돌린다. 한 바퀴를 돌아 자신의 그림을 만나게 되면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보완하고 완성시킨다. | 정체성 인식과 집단원의 응집력, 상호관계 가능케 함. |
| 가장 중요한 존재 | 현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을 선택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잡지나 사진에서 오려 붙인다. | 정체성 확인, 자신과 타인의 관계 인식 및 수용. |

30) 정여주(2007), 상계서 p 275,288,343

31) 옥금자(2007), 상계서 p 343

| | | |
|------------|---|---|
| 생각 나누기 | 집단원들은 4~5명이 한 팀이 되어 점토를 이용해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든다.(자신이 무얼 만들지 집단원에게 말하지 않는다) 5분마다 자신이 만들던 것을 오른쪽 옆 사람에게 건네주고 마지막엔 처음 만들었던 자신의 작품이 완성품이 되어 돌려받는다. 집단원이 모여 자신이 생각한 것과 변화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연상을 통한 창의력 증진, 비언어적 의사소통 개발, 상호관계 수용. |
| 우리의 나무 그리기 | 직사각형의 전지에 그림에 대한 계획을 말하지 않고, 모두가 말없이 동시에 한 그루의 나무를 그린 후 자신의 마음을 끄는 부분을 찾아서 그 자리에 가서 머물러본다. | 집단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 발견, 집단의 역동성 경험, 성장의 힘과 조화 경험. |
| 둘이서 그리기 | 두 명이 한 종이를 이등분한 것을 놓고 각자 다른 색을 선택하여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서로의 자리를 바꾸어 상대방이 그렸던 그림을 이어서 계속 그린다. 그림을 완성 후 제목을 정한다. | 그림을 통한 대화 능력, 상호관계 향상, 창의력 개발, 정서적 이완에 도움. |

(6) 가족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가족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통해 가족의 근원 및 과거와 현재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며 가족간의 갈등과 문제점을 발견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속에 협력적인 관계로 증진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가족 개개인의 내적욕구와 감정,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가족 구성원간의 올바른 상호작용과 가족간의 통합을 가능케한다. 가족관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김정은(2004)³²⁾과 옥금자(2007)³³⁾의 문헌을 중심으로 <표 12>과 같이 정리하였다.

32) 김정은(2004), 상계서, p 29

<표 12> 가족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기대효과 |
|------------|--|---------------------------------|
| 가족 벽화 그리기 | 가족이 함께 외출하거나 여행했던 경험을 이야기 하고 그린다. | 현실인지와 가족의 중요성 인식. |
| 가족 인형 만들기 | 가족 구성원의 인형을 만들어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 | 가족구성원의 위치관계 파악. |
| 가족 관계도 그리기 | 가족 구성원 개인이 상호작용하고 서로 결합되어 있는 방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상징하는 간단한 도형을 사용하여 그린다. | 가족구성원과 역동성 표현. |
| 가족 신체 그리기 | 각자의 신체 외곽을 본뜬 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신체화에 긍정적인 글이나 칭찬, 느낌 등으로 표현하고 콜라주로 완성한다. | 가족구성원이 자기존중감과 소중함, 사랑을 인식. |
| 돌아가며 그리기 | 가족 구성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그림을 그린다. |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의 의도, 감정인식. |
| 가족 만다라 | 각자가 개인 만다라를 만든다. 큰 원형을 가운데 두고 원하는 위치에 개인 만다라를 붙이고 느낌을 함께 나눈다. | 가족구성원의 심리 인식과 관계 증진, 통합을 가능케 함. |

33) 옥금자(2007), 상계서, p 344

3. 치료적 미술교육

1)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관계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미술 활동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창의성이나 사고력 증진 등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서로 밀접한 관계속에 놓여 있다. 미술치료는 사람들이 창작하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포함하기에 자연스럽게 교육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나 교육은 치료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위한 보조적인 것으로 미술치료사가 미술 기법을 가르칠 때는 단순히 기능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법으로 사람이 감정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게 하고 높은 수준의 승화를 경험하게 하며 높은 자존감을 성취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가르친다. 미술교육도 치료적인 면들을 가진다. 훌륭한 미술교사들은 넓고 유익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길러 주고 성장을 증진시킨다. 미술은 긴장을 풀게 하고, 규율에서 자유를 느끼게 하고, 금단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표현하게 하고,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가시화 하며, 말로 옮기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생각들을 표현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적인 힘을 내재하고 있다.³⁴⁾

이렇듯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미술교육 안에는 치료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미술치료 안에는 교육적인 요소가 들어 있어 서로 상호적인 관계속에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반면 여러 측면에서 엄연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미술교육은 교육이라는 입장을 취하여 개인보다는 전체에 초점을 맞추어 미리 계획된 구조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미술치료는 치료라는 입장을 취하여 전체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 개개인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치료의 방법이나 접근이 달라진다.

34) Judith Rubin(2010), 김진숙 역, 『미술치료학 개론』, 학지사, p 96

둘째,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미술교육은 지식전달의 기본목적과 함께 완성된 작품의 내용과 조형적인 미를 평가하지만 미술치료는 미술 작업을 통해 개인의 심리·정신적 상태나 상황 등을 진단하고, 그 문제를 경감시키고 예방하려는 데 기본목적을 둔다. 이에 미술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작품 제작 과정을 중요시 하여 그림에 나타난 각 개체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평가가 이루어진다.

셋째, 재료 활용에 있어서 미술교육에서의 재료 활용은 시각화 작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 되지만 미술치료에서의 재료 활용은 개인의 상황 개선과 복잡한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출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렇듯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각각의 고유한 학문으로 자리 잡고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반면 상호적인 관계에 있고 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바람직한 인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한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기에 미술교육 바탕위에 미술치료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

2) 치료적 미술교육의 의미와 배경

치료적 미술교육에 대해 헨리(Henley, 1992)는 미술 제작과정의 치료적 장점을 인식하여 사용하는 미술교육이며 이러한 치료적 미술교육은 청소년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고 지지하며, 생산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여 진지하게 그들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교육이라 하였다. 미술을 매개로 한 교육적, 치료적 작업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의 계몽주의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시대의 대표적 교육자인 스위스의 페스탈로치(pestalozzi, 1746-1827)는 교육에서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힘을 개발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졌다. 페스탈로치는 교육과정에 미술시간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도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 페스탈로치는 미술수업의 방법을 자연에서 찾고자 했으

며 주된 교육대상은 중증 정신지체 아동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어린이들이었다. 미술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소외 받는 어린이들에 대한 예술적 힘을 계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런 점과 연계하여 페스탈로치를 교육적 미술치료의 선구자라고 본다.

19세기에는 미술교육과 미술교수법이 자연묘사력, 외적인 아름다움과 균형을 중시한 반면, 20세기 초부터 미술 교육가들은 그 시대의 미술조류가 된 표현주의 화풍과 프로이트의 심층심리학에 영향을 받아 미술교육에 그러한 관점들을 실제에 적용하려하였다. 미술 교육가들은 아동들이 자신의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충동들을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했고 아동의 본성에서부터 표현될 수 있는 미술교육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개혁적 관점의 대표적인 미술교육가는 치첵(Cizek, 1865-1946)으로 그는 아동그림의 형식과 기법은 무엇보다 아동들이 외적인 영향에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독일에서 형성된 바우하우스의 조형교육의 책임을 맡은 교수였던 이텐(Itten, 1888-1967)은 두 손으로 그리기, 신체운동 조절, 사용하지 않는 손의 훈련, 색 체험 등 감각경험을 조형 활동의 성취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보았다. 특히 그의 저서 『색채의 예술』(Kunst der Farbe)에서는 색채의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원리를 화가들의 경험과 직관에 바탕을 두고 연구하여,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이론적 바탕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우하우스의 교수였던 바실리 칸딘스키(Vassily Kandinsky, 1866-1944)도 1912년 그의 저서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에서 관찰과 감정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색채와 형태는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합리적이고도 분석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관찰과 직접적 경험에 따른 미술적 표현의 강조는 미술치료에 적용하여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20세기 들어와서 미술교육은 조형 활동을 통한 심리적, 치료적 방향의 모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아동들이 전의식의 내용들을 자극하고 정서적 내용을 표출할 수 있도록 난화 그리기, 젖은 종이에 색칠하기, 콜라주 등 다양한

미적 재료를 이용한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이 시기에 미술교육자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미술표현뿐만 아니라, 창의력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의 저자인 리드(Read)와 『창의성과 정신적 성장』(Creative and Mental Growth)을 집필한 로웬펠드(Lowenfeld)의 영향이 60년대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20년대의 듀이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예술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며 창의적인 인간본질을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아동중심의 활동구상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관점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미술치료에 적용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에 예술가, 미술교육자, 미술치료사들을 통하여 조형의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새로이 전개되었다. 미국의 미술교육자인 코헨(Cohen)과 게이너(Gainer)는 미술교육에서 미술활동과정을 통한 아동들의 표현과 그들의 사고와 정서 및 감정을 중시하였고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점은 미술교육과 교수법에 있어서 미술의 치료적 관점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시대마다 예술가, 심리학자, 미술교육자들은 미술을 통하여 인간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미술의 치료적 관점에 대한 이론적 기반들을 제시하여 미술교육의 바탕 위에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였음을 볼 수 있다. 오늘날 미술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미술의 치료적 관점에서의 미술교육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적 미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3) 청소년기 치료적 미술교육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가정, 학교 또는 주변 환경 및 또래 집단에서 스트레스, 불안, 학

습장애 등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며 등교 거부, 도벽, 비행, 폭력, 과잉행동 등 문제 행동을 표출한다.

2008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15~19세의 중고등학생들 중 10명 중 7명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였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스스로 학문을 추구해 가야 할 학교는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곳으로 변해 청소년의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15~24세 청소년의 8.9%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5~19세의 중고등학생은 자살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51.0%가 성적과 진학문제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직면하는 문제와 함께 학교생활과 성적과 진학문제 등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 속에서 살아가기에 정서와 자기 표현을 위한 배출구가 필요하다. 삶 속에서 그들의 사고와 정서, 환경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자아를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치료적 차원에서의 미술교육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 방법으로 치료적 미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치료적 미술교육은 청소년의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주고 감정과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심상을 다루는 미술치료는 청소년기의 민감한 감각을 살려 접근할 수 있으며 추상적인 언어나 수치로 자신을 알아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내면의 표현에 의한 것이며, 또한 외부에서 전해주는 자료의 습득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인식을 돕는다. 이러한 점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예민한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인식해 가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치료적 미술교육은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³⁵⁾ 학교 정규미술수업 시간에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미술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

35) 김선현(2010), 상계서 p 36

하고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미에서는 미술교사 및 상담교사들이 미술을 통한 치료적 관심과 필요성 때문에 교원연수 및 보수교육의 기회와 대학의 미술치료학과에서 미술치료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교원연수에서 점차적으로 미술치료과목이 도입되고 있다. 근래에 공교육기관의 현직 미술교사들 뿐 아니라, 사교육기관에서 미술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기존의 미술교육 외에도 미술을 통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한다. 특히 사교육 기관의 미술교사들에 의하면 부모들도 자녀가 기능적인 미술기법의 훈련이 아닌 미술을 통한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³⁶⁾ 이에 미술교사들은 미술치료연수나 교육과정 등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으며 미술교육자들은 미술교육 바탕위에 치료적 관점을 가지고 학교현장의 미술수업에서의 교육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배순자(2000), 정은영(2001), 유은선(2003), 권준범(2003), 정소은(2005), 도은지(2007), 김인실(2008) 등은 석사논문에서 학교현장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적용함으로써 미술치료의 인성적, 정서적, 대안적으로서 교육적 활용가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동향은 그 효과를 인정하여 미술 교육계에서도 이미 치료적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중등미술교육에서 치료적 관점을 가지고 치료적 미술교육을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이 말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어른보다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말을 간접적으로 들어 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또한 이를 통해 감정을 분출하면서 스트레스를 감소해준다.

둘째,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 및 자존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자기 절제를 할

36) 정여주(2007), 상계서, p 29

수 있게 한다. 청소년기에 정체성 확립과 자존감 형성은 이 시기의 큰 과업이다. 미술활동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가며 자신을 진정으로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해낸다.³⁷⁾

셋째, 자기 확장을 할 수 있다. 청소년기 참아내기 힘든 내적 복잡함과 갈등, 불안을 표현하게 해주는 동시에 장점을 발견하고 건강한 내적 자원들을 창작 과정 속에서 찾아내어 그것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자기표현이 자기 확장으로 이어지게 한다.³⁸⁾

넷째,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집단 미술활동에서 미술 재료의 공동 사용, 공동 작업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눔으로 감정이입의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집단 속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과 수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 대인관계의 기술을 익히게 되어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다섯째, 학교교육에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학기 초에 교사와 학생들과의 첫 미술수업에서 인물화 검사나 동적 가족화 검사, 학교생활화 검사 등 진단적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다면 학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문제성향의 학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치료적 미술교육의 필요성과 그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성적과 진학문제 등 다양한 문제 속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과 갈등속에 살아가기에 자기표현을 위한 배출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정규미술수업 시간에 이러한 치료적 미술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미술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아를 탐색하고 인식해 가며 자아정체감을 형성케하며 내면 표출 및 욕구를 발산케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불어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거나 예방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7) 조은희(2006), 「중등 미술 교육과정에서의 미술치료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8

38) 이선경(2009), 상계서, p 29

Ⅲ. 치료적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1. 현행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

1) 중학교 교과 내용 영역

중학교 미술교육과정에서는 전인적 인간 육성을 바탕으로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 능력, 미술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학교에 해당하는 7·8·9 학년의 미술 교과 내용 영역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이루어진다. 영역별 교수·학습의 방향은 <표 13>과 같다.³⁹⁾

<표 13> 교과 내용 영역

| | | |
|----|-------|--|
| 영역 | 미적 체험 |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연 환경과 시각 문화 환경에 대한 탐색, 탐구, 이해, 판단 등의 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
| | 표현 |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과정, 표현의 확장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주도적으로 나타내는 영역이다. |
| | 감상 | 미술 문화의 이해, 비평, 향수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를 준비하는 영역이다. |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인 미적체험, 표현, 감상 중 표현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⁴⁰⁾

39) 이성도외 4인(2010), 『중학교 미술 교사용 지도서』, 교학연구사, p 10

40) 이성도외 4인(2010), 상계서, p 11

<표 14> 표현 영역

| 영역 | 활동 목표 | 활동 내용 |
|-----------|---|--|
| 주제 표현 |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나타내기. ②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여 나타내기. ③ 다른 교과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나타내기. |
| 표현 방법 |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①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등을 탐색하여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나타내기. ② 사진, 영상 등의 새로운 매체와 표현 방법을 탐색하여 나타내기. |
| 조형 요소와 원리 |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① 주제의 특징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조형 요소와 원리로 나타내기. ② 목적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나타내기. |
| 표현 과정 | 표현 의도에 알맞은 표현 과정을 계획한다. | ① 표현 의도에 알맞은 주제,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등을 계획하여 나타내기 ② 표현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

2) 중학교 학년별 교과내용

중학교 미술교과서 중에서 교학연구사를 선정하여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을 표현영역을 중심으로 학년별로 <표 15>와 같이 정리 하였다.⁴¹⁾

41) 이성도의 4인(2010), 상계서 p 116-121

<표 15> 학년별 교과 내용

| 영역 | 단원 (중학교 1 학년) | 단원명 (중학교 2 학년) | 단원명 (중학교 3 학년) |
|----|--|--|--|
|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발견 ·학교생활 ·한 가지 색으로 ·숲과 나무 ·자연과 함께하는 미술 ·입체로 표현하기 ·민화 이야기 ·색의 기초와 원리 ·시선을 끄는 디자인 ·개성 있는 패션 ·미술에 담은 세상 ·미술이 있는 공간 ·먹의 향기 ·글자에 깃든 아름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과 상상의 세계 ·우리가족이야기 ·운동감을 강조하여 ·하늘의 표정 ·시선이 머무는 풍경 ·판 위에서 ·명화의 변신 ·재활용품의 새로운 발견 ·움직이는 그림 ·친근감을 주는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 ·다양한 형태의 복디자인 ·쾌적한 생활 공간 ·표정 있는 거리 ·미술가를 찾아서 ·백남준, 새로운 길을 열다 ·다른 문화, 다양한 축제 ·소망을 담은 그림, 민화 ·전통 공예의 숨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 ·우리 동네 ·인물의 다양한 표현 ·색의 느낌을 살려 ·작은 생명의 아름다움 ·천연 재료로 물들이기 ·고요한 생명 ·시기한 그림과 형태 ·미술의 경계를 넘어 ·사진과 이미지 ·이해하기 쉬운 픽토그램 ·메시지를 전달하는 디자인 ·배려하는 디자인 ·기능적인 디자인 ·휴가와 여가를 위한 디자인 ·미술로 의미 나누기 ·시대의 유행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공 미술 ·채색의 멋 ·전통의 재발견 ·시각과 전각의 세계 ·흙과 불의 만남 |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해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 중 ‘표현’영역을 선택하였다. ‘표현’영역은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주도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미술치료의 기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영역이라 생각하여 표현영역을 선택하였다. 미술치료는 미술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 즉, 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격이기에 이러한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영역을 선택하였다.

또한 <표 15> 학년별 교과 내용 중 중학교 1학년 ‘나의 발견’ 단원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과 긍정적인 자아감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자신을 주제로 학습하는 ‘나의 발견’ 단원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모습에서 개성을 찾고 내면을 들여다 보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관찰하여 다양한 기법과 재료로 다양하게 자신의 모습을 표현 하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프로그램 설계

1) 단원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서울시 도봉구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6명(1학년 남학생 2명과 1학년 여학생 4명)을 대상으로 미술수업에 적용해 보았으며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근거하여 학습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기는 정체성 확립과 긍정적인 자아감 형성이 큰 과업의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신을 주제로 학습하는 단원으로 자신을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여 다양한 기법과 재료로 표현할 수 있는 단원, 즉 <표 15> 학년별 교과 내용 중 중학교 1학년 표현 영역에 제시된 ‘나의 발견’ 단원을 선정하여 현행 미술수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수업 안에 미술치료 기법을 활용에 있어서 <표 6>의 치료적 미술프로그램 영역 중 1차시와 3차시, 4차시에는 <표 7>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자화상 그리기, 석고 붕대 손뜨기, 버리고 싶은 나, 간직하고 싶은

나)을 활용하였고, 2차시에는 <표 9>의 무의식적 표현을 위한 프로그램(먹물 난화그리기)을 활용하였다.

매체활용과 수업내용에 있어서 1차시에는 아크릴 물감의 매체를 활용해 자화상 표현으로 내면의 감정 표현을, 2차시에는 먹물 재료를 활용해 자신의 무의식 표현을, 3차시에는 콜라주 기법 활용해 내면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함으로 자기 인식과 자기수용을, 4차시에는 석고붕대 손 뜨기 기법을 활용해 자신의 장점과 역할들에 대해 알아가며 긍정적인 미래상을 갖을 수 있도록 수업계획안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을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고 자신의 여러 모습에서 표현 주제를 찾아 가장 자신 있고 재미있는 표현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수업 지도 방향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중시하여 담화를 많이 나누었다. 또한 작품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최대한 학생들이 작품 속에 생활에서 경험한 자기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표현 동기를 높였다.

또한 수업 후의 결과물은 수업이 끝난 후 작품감상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생의개인 관찰과 작품, 수업 후의 설문 등으로 구성하였다.

2) 단원 교수·학습 계획

(1) 단원선정

【대단원】 표현

【중단원】 나의 발견

【소단원】 ① 내 마음의 얼굴

② 먹물 난화 이야기

③ 버리고 싶은 나, 간직하고 싶은 나

④ 자랑스러운 나의 손

(2) 단원 설정 이유

신체적, 지적 발달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에는 자아에 대한 탐구와 조화로운 발달이 중요하다. 본 단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모습에서 개성을 찾고 내면을 들여다 보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관찰하여 다양한 기법과 재료로 다양하게 자신의 모습을 표현 하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한다.

본 단원은 1차시~4차시 모두 자기 자신을 표현 대상으로 삼아 여러 관점에서 탐구하는 활동을 하며 자신의 내면의 여러 모습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가운데 숨겨져 있는 자신의 욕구나 내면의 감정 표출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또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자기인식과 자기수용의 시간을 가짐으로 스스로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새롭게 자신을 정립함으로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연구대상 및 학습자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하며 인근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 6명으로 1학년 남학생 2명과 1학년 여학생 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본 연구자가 교회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로 이들의 성격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부모님의 허락 하에 시작하게 되었다. 2명을 제외하고는 부모님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평범하게 생활하는 학생들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언어와 산만함, 부정적인 미래상과 자신에 대해 성격, 외모, 학업 등 많은 열등감으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이다. 또한 학교와 학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또래와의 관계, 부모·형제와의 관계 등 다양한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학생들이다.

(4) 수업시간 :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각 45분, 총 180분 수업 구성)

(5) 단원의 학습 목표

- ① 내면의 다양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한다.
- ② 무의식적인 생각, 감정, 느낌 등에 대해 표현한다.
- ③ 자신의 욕구나 내면의 감정 표출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다.
- ④ 다양한 미술매체(재료)들을 경험해 보고, 매체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 ⑤ 작품 감상을 통해 경험한 느낌 대해 서로 나눔으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6) 단원의 학습 효과

- ① 자신의 내면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를 갖는다.
- ② 분노, 적대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
- ③ 무의식적인 생각, 감정, 느낌 등은 의사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④ 제작과정을 스스로 주도하여 작품을 완성함으로 개인적인 성취감, 만족감 등을 느끼면서 자아개념을 인식, 강화할 수 있다.
- ⑤ 미술 작업에 흥미가 없거나 자신이 없어하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재료와 방법을 통해 학습하게 함으로 미술에 쉽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을 수 있다.
- ⑥ 미술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7) 지도상의 유의점

- 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감정 등을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모든 미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② 재료의 사용이나 진행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하도록 하고, 다양한

재료의 사용으로 개성적인 표현이 되도록 유도한다.

- ③ 표현의 결과보다 표현활동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한다.
- ④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으로 수업 후에 주변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작품 감상이 산만하지 않고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8) 평가

평가에 있어서 수업태도, 준비물, 작품제작보고서, 감상 보고서, 발표 등의 기본평가와 작품의 창의력과 표현력, 재료의 활용력, 작품의 완성도 등의 개별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① 평가 방법

평가 도구 = 기본 평가 + 개별 평가 (50점 + 50점 = 100점)

② 기본 평가

<표 16> 기본평가

| 평가도구 | 평가점수(점) | 평가관점 | 평가방법 |
|---------|---------|-------------------------|-------------------------------|
| 수업태도 | 10 | •수업 성실도 | •3번 지적시 1점 감점. •결석시 1점 감점. |
| 준비물 | 10 | •기본 준비물을 잘 준비하였는가? | •기본 준비물 미준비시 1점 감점. |
| 작품제작보고서 | 10 | •발상 및 구상 스케치가 잘 표현 되었나? | |
| 감상문 보고서 | 10 | •작품의 과정과 느낌을 잘 기술하였나? | |
| 발 표 | 10 | •작품에 대한 느낌을 잘 말할 수 있는가? | 10 작품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함. |
| | | | 8 소극적이거나 작품에 대해 발표함. |
| | | | 6 미발표함. |

③ 개별평가

<표 17> 개별평가

| 평가도구 | 평가점수(점) | 평 가 관 점 | 평가방법 | |
|--------------|---------|----------------------------|--------|--|
| 작품의 창의력과 표현력 | 20 | •작품의 주제에 맞게 창의적으로 잘 표현했는가? | 상(20점) | |
| | | | 중(18점) | |
| | | | 하(16점) | |
| 재료의 활용력 | 20 | •재료를 잘 활용하여 표현 했는가? | 상(20점) | |
| | | | 중(18점) | |
| | | | 하(16점) | |
| 작품의 완성도 | 10 | •작품의 마무리와 완성 정도. | 상(20점) | |
| | | | 중(18점) | |
| | | | 하(16점) | |

(9) 단원 교수·학습 계획

<표 18> 단원 교수·학습 계획

| 소단원 | 차시 | 학습내용 | 학습자료 | 비고 |
|-----------------------|--------------|--|---|---|
| 내 마음의 얼굴 | 1차시 (4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상의 의미와 특징 이해 •자화상 작품 감상 •작품구상 및 스케치 (작품에 대한 계획세우기) •작품 제작 •감상과 발표/정리 •차시 예고, 차시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 PPT자료 • 유인물 -작품 제작 계획서 -작품 감상 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 •실기 •감상 |
| 먹물 난화 이야기 | 2차시 (4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화의 의미와 추상 미술의 다양한 표현 방법 이해 •추상화 작품 감상 •작품구상 및 스케치 (작품에 대한 계획세우기) •작품 제작 •감상과 발표/정리 •차시 예고, 차시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 PPT자료 • 유인물 -작품 제작 계획서 -작품 감상 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 •실기 •감상 |
| 간직하고 싶은 나 버리고 싶은 나 | 3차시 (4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라주 의미와 특징이해 •콜라주 작품 감상 •작품구상 및 스케치 (작품에 대한 계획세우기) •작품 제작 •감상과 발표/정리 •차시 예고, 차시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 PPT자료 • 유인물 -작품 제작 계획서 -작품 감상 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 •실기 •감상 |
| 자랑스런 나의 손 | 4차시 (4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소의 특징과 조형 요소 이해 •입체작품과 석고작품 감상 •작품구상 및 스케치 (작품에 대한 계획세우기) •작품 제작 •감상과 발표/정리 •차시 예고, 차시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 PPT자료 • 유인물 -작품 제작 계획서 -작품 감상 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 •실기 •감상 |

3) 본시 학습지도안

(1) 1차시 학습지도안

<표 19> 1차시 학습지도안

| 대단원 | 표현 | 중단원 | 나의 발견 | 소단원 | 내 마음의 얼굴 | 차시 | 1 |
|---------|---|--|-------|---|---------------------------------|---------------|---|
| 학습 목표 | ① 자화상의 의미와 종류, 특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②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등 내면의 감정 변화에 따른 얼굴의 특징을 파악하여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학습 효과 | ① 자신의 내면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를 갖는다. ② 자신의 얼굴을 마음껏 표현해 보는 과정에서 자기 안에 있는 억압된 감정이 표출된다. ③ 서로의 작품 감상을 통해 서로의 개성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 | | | | | |
| 학습 형태 | 강의식, 실기 수업 | | | | 소요 시간 | 45분 | |
| 학습 준비물 | 교 사 PPT자료(예시 작품), 학습 유인물 | | | | 학 생 아크릴 물감, 도화지, 붓, 물통, 필기도구 | | |
| 단계 (시간) | 학습 내용 | 교수·학습 활동 | | | | 자료 및 유의점 | |
| | | 교 사 | | 학 생 | | | |
| 도입 (5분) | 인 사 | ▪상호인사 및 출석 확인 -인사 및 출석 점검 -학습 준비물 확인 -단원명 제시 | | ▪상호인사 및 출석 확인 -인사 및 출석 확인 -학습 준비물 확인 -단원명 인지 | | PPT자료(예시 작품) | |
| | 흥 미 유 발 | ▪자화상 작품 감상 -인물의 특징, 성격, 심리상태 등에 대해 질문 한다. -인물에는 다양한 감정과 표정이 있음을 인지시킨다. | | ▪자화상 작품 감상 -인물의 특징, 성격, 심리상태 등에 대해 대답 한다. -인물에는 다양한 감정과 표정이 있음을 인지한다. | | | |
| | 학습 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제시하여 다 함께 소리 내어 읽도록 한다. | | ▪학습목표를 다 함께 소리 내어 읽는다. | | | |

| | | | | |
|------------------|---|---|--|---|
| 전개 (25분) | 자화상의 이론 및 작품구상 스케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화상의 의미와 특징, 재료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 인지시킨다. ▪자신의 개성을 찾아보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주로 어떤 표정을 지으며 생활하고 있는지 탐색해 보고 구상하여 스케치하게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화상의 의미와 특징, 재료와 표현방법에 대하여 인지한다. ▪자신의 개성을 찾아보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주로 어떤 표정을 지으며 생활하고 있는지 탐색해 보고 구상하여 스케치한다. | |
| | 구상한 자화상 옮겨그리기 및 채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화상 옮겨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기가 다른 도화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상한 자아상을 옮겨 그리게 한다. ▪자화상 채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채색케 한다. <p>(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매체이고 처음 사용하는 매체이므로 사용방법과 유의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화상 옮겨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기가 다른 도화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상한 자아상을 옮겨 그린다. ▪자화상 채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채색 한다. | 아 크 릴 물 감 사 용 방 법 과 유 의 사 항 을 인 지 시 킨다. |
| | 작품감상보고서작성 및 감상과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감상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감상보고서를 배부하여 작성케 한다. ▪감상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가 그린 자화상을 벽면에 전시하고 감상 하고 느낀 부분에 대해 발표케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감상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감상보고서를 작성한다. ▪감상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가 그린 자화상을 벽면에 전시하고 감상 하고 느낀 부분에 대해 발표한다. | 작품 감상보 고서 |
| 감상 및 정리 (10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화상의 의미와 특징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인지시킨다. ▪차시예고 및 주변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인지시키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할 수 있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화상의 의미와 특징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인지한다. ▪차시예고 및 주변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인지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한다. | | |

(2) 2차시 학습지도안

<표 20> 2차시 학습지도안

| | | | | | | | |
|---------|---|---|---|------------------------|-----------|-----|---|
| 대단원 | 표현 | 중단원 | 나의 발견 | 소단원 | 먹물 난화 이야기 | 차시 | 2 |
| 학습 목표 | ① 추상화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②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 ③ 서로의 감정과 느낌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다. | | | | | | |
| 학습 효과 | ① 무의식 속에 내재한 상상력을 표출시켜 저항감을 줄이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미술의 기법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표현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거부감을 줄여주고 흥미를 유발케 하여 표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어떤 그림이 나오고, 어떻게 보여 지는지를 자각할 수 있다. | | | | | | |
| 학습 형태 | 강의식, 실기 수업 | | | | 소요 시간 | 45분 | |
| 학습 준비물 | 교 사 | | | 학 생 | | | |
| | PPT(예시 작품), 학습 유인물 | | | 먹물, 크레파스, 색연필, 붓, 필기도구 | | | |
| 단계 (시간) | 학습 내용 | 교수·학습 활동 | | | 자료 및 유의점 | | |
| | | 교 사 | 학 생 | | | | |
| 도입 (5분) | 인 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인사 및 출석 확인 - 인사 및 출석 점검 - 학습 준비물 확인 - 단원명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인사 및 출석 확인 - 인사 및 출석 확인 - 학습 준비물 확인 - 단원명 인지 | PPT자료 (예시작품) | | | |
| | 흥 미 유 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화 작품 감상 - 몬드리안, 칸딘스키 등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케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화 작품 감상 - 몬드리안, 칸딘스키 등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 한다. | | | | |
| | 학습 목표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를 제시하여 다 함께 소리 내어 읽게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를 다 함께 소리 내어 읽는다. | | | | |

| | | | | |
|--------------------------|----------------------------------|---|---|---------------------|
| <p>전개 (25분)</p> | <p>추상화의 이론 및 수업주제 설명 / 작품 제작</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화의 의미와 추상화의 다양한 표현방법에 대하여 인지시킨다. ▪수업 주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물로 난화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①먹물을 문힌 붓으로 화지에 곡선, 직선, 나선, 감정의 선 등 자유롭게 선을 그리도록 한다. ②난화를 360도로 돌려 보며 연상되는 형태를 찾고 형태에 채색하여 구체화 시킨다. ③찾아낸 형태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해 본다. ▪작품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설명을 듣고 표현케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화의 의미와 추상 미술의 다양한 표현방법에 대하여 인지 한다. ▪수업 주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물로 난화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작품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설명을 듣고 표현 한다. | |
| <p>감상 및 정리 (10분)</p> | <p>작품감상 보고서 작성 및 감상과 발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감상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감상보고서를 배부하여 작성케 한다. ▪감상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가 그린 난화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게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감상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감상보고서를 배부 받아 작성 한다. ▪감상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가 그린 난화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 한다. | <p>작품 감상보고서</p> |
| | <p>학습정리/ 차시예고 및 주변정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화의 의미와 특징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인지시킨다. ▪차시예고 및 주변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인지시키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할 수 있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화의 의미와 특징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인지한다. ▪차시예고 및 주변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인지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한다. | |

(3) 3차시 학습지도안

<표 21> 3차시 학습지도안

| | | | | | | | |
|---------|---|--|-------|---|---------------------|----------------|---|
| 대단원 | 표현 | 중단원 | 나의 발견 | 소단원 | 버리고 싶은 나, 간직하고 싶은 나 | 차시 | 3 |
| 학습 목표 | ① 콜라주의 의미와 종류, 특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②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표현함으로 자신을 수용할 수 있다. | | | | | | |
| 학습 효과 | ① 자신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인식케하여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양면성에 대해 통찰케하여 자기인식과 자기수용의 기회를 제공 한다. ② 부정적인 심리를 표출하게 함으로 학생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는 문제적 사고 성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③ 콜라주를 이용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잡지나 사진 등을 오리고 찢어 붙이는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발산케하고, 창의성과 표현력을 향상시킨다. | | | | | | |
| 학습 형태 | 강의식, 실기 수업 | | | | 소요 시간 | 45분 | |
| 학습 준비물 | 교 사 | | | | 학 생 | | |
| | PPT자료(예시 작품), 학습 유인물 | | | | 잡지, 다양한 재료, 풀, 필기도구 | | |
| 단계 (시간) | 학습 내용 | 교수·학습 활동 | | | | 자료 및 유의 점 | |
| | | 교 사 | | 학 생 | | | |
| 도입 (5분) | 인 사 | ▪상호인사 및 출석 확인 -인사 및 출석 점검 -학습 준비물 확인 -단원명 제시 | | ▪상호인사 및 출석 확인 -인사 및 출석 확인 -학습 준비물 확인 -단원명 인지 | | | |
| | 흥 미 유 발 | ▪콜라주 작품 감상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감상케 한다. -창의적인 작품에 쓰인 다양한 재료와 그 특성에 대해인지 시킨다. | | ▪콜라주 작품 감상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감상 한다. -창의적인 작품에 쓰인 다양한 재료와 그 특성에 대해 인지 한다. | | PPT 자료 (예시 작품) | |
| | 학습 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제시하여 다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한다. | | ▪학습목표를 다 함께 소리 내어 읽는다. | | | |

| | | | | |
|------------------------|-------------------------------------|--|--|---------------------|
| 전개 (25분) | 이론 및 수업 주제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라주의 의미와 종류, 특징을 설명하고 인지시킨다. ▪수업 주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장점과 단점, 문제점,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 등을 생각하게하고 자신의 모습 중에서 간직하고 싶은 나의 모습과 버리고 싶은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하고 콜라주로 꾸미게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라주의 의미와 종류, 특징을 인지한다. ▪수업 주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장점과 단점, 문제점,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 등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모습 중에서 간직하고 싶은 나의 모습과 버리고 싶은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콜라주로 꾸며 본다. | |
| | 작품 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 방법에 대해 설명 한다. ①잡지에서 필요한 부분을 오려서 모아둔다. ②4절 도화지를 반을 접은 후 펼쳐서 왼쪽에는 부정적인 나의 모습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오른쪽에는 긍정적인 나의 모습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붙이도록 한다. ▪콜라주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라주로 자유스럽게 표현케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콜라주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라주로 자유스럽게 표현한다. | |
| 감상 및 정리 (10분) | 작품 감상보고서 작성 및 감상과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감상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감상 보고서를 배부하여 작성케 한다. ▪감상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가 표현한 콜라주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부분에 대해 발표케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감상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감상 보고서를 배부 받아 작성 한다. ▪감상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가 표현한 콜라주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부분에 대해 발표 한다. | 작품 감상 보고 서 |
| | 학습정리/ 차시예고 및 주변정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라주의 의미와 종류, 특징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한 번 인지시킨다. ▪차시예고 및 주변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인지시키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할 수 있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라주의 의미와 종류, 특징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한번 인지한다. ▪차시예고 및 주변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인지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한다. | |

(4) 4차시 학습지도안

<표 22> 4차시 학습지도안

| | | | | | | | |
|---------|--|---|--|---|----------------------------|----------------|-----|
| 대단원 | 표현 | 중단원 | 나의 발견 | 소단원 | 자랑스런 나의 손 | 차시 | 4 |
| 학습 목표 | ① 조소의 의미와 종류, 조형요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② 석고붕대 손 본뜨기 제작과정을 이해하여 입체작품을 만들 수 있다. | | | | | | |
| 학습 효과 | 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떠보고 꾸며봄으로써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 ② 자신의 손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탐색함으로 숨겨진 욕구를 발견케 하고 긍정적인 미래상을 갖게 한다. ③ 흥미유발, 집중력, 관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 | | | | | |
| 학습 형태 | 강의식, 실기 수업 | | | | 소요 시간 | | 45분 |
| 학습 준비물 | 교 사 | | | | 학 생 | | |
| | PPT자료(예시 작품), 학습유인물 | | | | 석고붕대, 채색도구, 다양한 장식재료, 필기도구 | | |
| 단계 (시간) | 학습 내용 | 교수·학습 활동 | | | | 자료 및 유의점 | |
| | | 교 사 | | 학 생 | | | |
| 도입 (5분) | 인 사 | ▪상호인사 및 출석 확인 -인사 및 출석 점검 -학습 준비물 확인 -단원명 제시 | | ▪상호인사 및 출석 확인 -인사 및 출석 확인 -학습 준비물 확인 -단원명 인지 | | PPT 자료 (예시 작품) | |
| | 흥 미 유 발 | ▪조소 작품 감상 -석고붕대 손 뜨기 작품과 함께 다양한 조소 작품을 감상케 한다. | | ▪조소 작품 감상 -석고붕대 손 뜨기 작품과 함께 다양한 조소 작품을 감상한다. | | | |
| |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제시하여 다 함께 소리 내어 읽도록 한다. | | ▪학습목표를 다 함께 소리 내어 읽는다. | | | |
| 이론 및 수업 | ▪조소의 의미와 종류, 조형요소를 설명하고 인지시킨다. ▪수업 주제 설명 -손에 대한 시와 글을 듣고 자신의 손으로 하고 싶은 일이 | | ▪조소의 의미와 종류, 조형요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인지한다. ▪수업 주제 설명 -손에 대한 시와 글을 듣고 | | | | |

| | | | | |
|----------------------------------|---|--|--|--|
| <p>전개 (25분)</p> | <p>주제설명 작품 제작</p> | <p>무엇 인지 탐색해 보고 표현해 본다. ▪표현하는 방법 -석고붕대 손 분뜨기 제작과정과 표현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①석고 붕대를 조금 가는 직사각형으로 잘라 놓는다. ②표현할 손에 핸드크림을 바른다. ③석고붕대에 물을 묻혀 두께가 느껴질 정도로 여러 겹 손등에 붙인다. ④석고가 굳을 때까지 기다린 후 건조되면 떼어내고 채색하거나 다양한 장식을 덧 붙인다.(털, 색지, 한지, 끈, 반짋이 재료 등) ▪표현하기 -석고붕대로 손을 분떠서 입체 작품을 표현케 한다.</p> | <p>자신의 손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 표현해 본다. ▪표현하는 방법 -석고붕대 손 분뜨기 제작과정과 표현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표현하기 -석고붕대로 손을 분떠서 입체 작품을 표현 한다.</p> | |
| <p>감상 및 정리 (10분)</p> | <p>작품감상 보고서 작성 및 감상과 발표</p> | <p>▪작품감상보고서 작성 -작품 감상 보고서를 배부하여 작성케 한다. ▪ 감상과 발표 -각자가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부분에 대해 발표케 한다.</p> | <p>▪작품감상보고서 작성 -작품 감상 보고서를 배부 받아 작성케 한다. ▪ 감상과 발표 -각자가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부분에 대해 발표 한다.</p> | |
| | <p>학습정리/ 차시예고 및 주변정리</p> | <p>▪학습정리 -조소의 의미와 종류, 조형요소와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한번 인지시킨다. ▪차시예고 및 주변정리 -다음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인지 시키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p> | <p>▪학습정리 -조소의 의미와 종류, 조형요소와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한번 인지 한다. ▪차시예고 및 주변정리 -다음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인지하고 주변을 정리 한다.</p> | |

3. 프로그램 결과 및 분석

‘나의 발견’ 단원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설계 후 시작된 프로그램은 중학생 6명(1학년 여학생 4명과 1학년 남학생 2명)으로 모든 학생이 1차시~ 4차시 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 하였다.


프로그램 결과 및 분석에 있어서 학생들의 미술활동 과정중 각 학생의 개인 관찰한 결과 내용과 감상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고, 수업 후 설문조사하여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결과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1) 개인관찰 내용과 작품

미술수업 과정 중 개인관찰 내용과 작품, 감상보고서를 참고하여 <표 24>~<표 29>에 정리하였다.

(1) A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표 23> A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 주제 / 작품 | 관찰 내용 |
|--|---|
| 내마음의 얼굴  | A는 아크릴 물감으로 칠하는 부분이 어려웠다고는 했지만 채색하는데 있어 색 혼합도 잘하고 담대하게 채색하여 완성하였다. 자신의 표정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즐거운 표정을 그리고 싶었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주변의 친구들이 약 먹기 싫어서 찡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노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매운 음식 먹고 입속에 불나는 것 같기도 하다며 A의 작품을 보며 재미 |

| | |
|---|--|
| | <p>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p> |
| <p>떡볶이 난화이야기</p>  | <p>A는 난화 설명을 듣고 막 그린 난화도 자신의 느낌이 들어갔다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림을 그리니 자신의 난화가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이미지를 찾는데 더 많이 찾지 못해 아쉬움을 보였고 미술수업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며 또 해보고 싶다고 했다.</p> <p>난화그림에서 찾아낸 이미지는 돌고래, 별, 나비, 신발, 산, 보석으로 난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p> <p>돌고래가 친구 나비에게 부탁을 했다. 저 신발을 신고 산에 올라가서 별을 따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러자 나비가 별을 왜 따달라냐고 묻자 돌고래가 배가 고프는데 먹을게 없어 별이라도 먹고 살아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비가 별을 따다 주었더니 돌고래가 고맙다며 선물로 보석을 주었다. 이들의 우정은 더 깊어졌다.</p> |
| <p>버리고 싶은 나, 간직하고 싶은 나</p>  | <p>A는 콜라주 작업을 좋아 하여 열심히 찾고 열심히 오려서 꾸몄다.</p> <p>A는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못했었는데 콜라주 작업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했다.</p> <p>A가 좋아하는 것에는 인기 연예인과 명품, 화장품, 동물들의 이미지를 붙였으며 싫어하는 것으로는 생선, 버스, 생쥐 등의 이미지를 붙였다. 버스를 왜 싫어하냐는 물음에 버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답답해서 싫다고 하였다.</p> |

| | |
|--|--|
| <p>자랑스런 나의 손</p> | <p>A는 석고붕대 손뜨기 작업에 대해 매우 흥미를 가졌다. 손에 대한 시와 글을 들으며 자신의 손으로 사람들의 머리와 손톱, 피부 등을 가꾸어 주고 싶다고 하며 손톱에 반짝이풀을 이용하여 예쁘게 그리고 장식품을 이용하여 반지와 팔지를 꾸몄다. 자신의 꿈은 헤어 디자이너인데 이번 시간을 통해 네일아트를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며 뿌듯해 했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도 만족해 했다. 또한 제작과정 중 섬세한 부분까지 마무리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은 꼼꼼한 성격인 것 같다고 웃음을 자아냈다.</p> |
| <p>총 평</p> | |
| <p>A는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자기표현을 잘 하는 여학생이다. E처럼 모든 수업에 성실히 참여 하였고 자신의 모든 작품에 자부심을 갖고 핸드폰으로 자신의 작품을 찍어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하였다. 석고붕대 손뜨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은 헤어디자이너의 꿈을 꼭 이룰거라고 하며 강한 의지와 함께 긍정적인 미래상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A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여 타인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잘 수용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3, 4차시때는 상대방을 이해하며 수용하는 자세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p> | |

(2) B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표 24> B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 주제/작품 | 관찰내용 |
|---|---|
| <p data-bbox="247 488 443 521">내마음의 얼굴</p>  | <p>B는 요즘의 자신의 모습, 자신의 기분이 어떨지에 대한 질문에 “그냥그래요”, “아무 생각 없어요” 하며 무성의 하게 대답했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탐색해보고 내면의 표정을 그리라고 했을때 빠른 스케치 후 제일 먼저 채색에 들어갔다. 조명을 받으면 머리색이 빨강게 보인다고 빨강색으로 채색하였고 완성 후 자신의 그림을 보며 바보 같기도 하고 무표정한 것 같다고 별로 좋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선생님은 귀엽고 빨간머리가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미소를 지었다.</p> |
| <p data-bbox="236 952 454 985">먹물 난화이야기</p>  | <p>B는 먹물로 낙서해본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재미있을 것 같다고 1차시 때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작업에 임했다. 난화가 자유스럽고 자신이 마음대로 그릴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고는 했지만 이미지 찾는 것을 귀찮아 했다. 처음에는 물고기와 고래 이미지만 찾고 다 했다고 손을 놓더니 주위의 친구들이 많은 이미지를 찾는 걸 보고 더 찾아야겠다고 3개(보아뱀, 백큐, 날개)를 더 찾아 이야기를 구성하였다.</p> <p>난화에서 찾은 이미지는 물고기, 고래, 보아뱀, 백큐, 날개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p> <p>물고기랑 고래가 친구였는데 보아뱀이 고래를 잡아먹었다. 그래서 물고기가 백큐를 보아뱀에게 남긴 후 날개를 달고 도망갔다.</p> |

| | |
|--|--|
| <p>버리고 싶은 나, 간직하고 싶은 나</p> |  <p>B는 이번 수업에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안 좋았다. B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잡지에서 찾아오려 붙이라고 했는데 잡지 넘기고 오리는 걸 귀찮아 했다. 그리고 크게 오려 6개 정도 붙이고 싫어하는 것에는 과일을 찾아 하나만 붙였다.</p> |
| <p>자랑스런 나의 손</p> |  <p>B는 이번 수업에서는 지금까지 수업 중 가장 성실함으로 수업에 임했다. 석고봉대 손뜨기전에 핸드크림을 발랐는데 미끌미끌하여 재미있고 자신의 손이랑 똑같이 생겼다며 신기해 했다. 손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손에 대한 시와 글을 듣고 자신의 손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p> |
| <p>총 평</p> | |
| <p>B는 처음 수업때 표정도 안 좋고 부정적인 말과 함께 불성실한 태도를 많이 보였다. 감상과 발표 시간에도 마지못해 발표하거나 하지 않았다. 하지만 4차시때는 표정도 많이 밝아지고 발표도 잘하고 다른 친구들이 발표할때는 경청도 하는 등 부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에서 조금은 긍정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었다.</p> | |

(3) C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표 25> C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 주제/작품 | 관찰내용 |
|---|--|
| <p data-bbox="248 495 443 528">내마음의 얼굴</p>  | <p>C는 아크릴 물감 사용이 처음이라며 어려워했다. 사용방법을 알려 주었지만 그냥 수채화처럼 사용하였다. 작품을 완성하고 친구들이 모여 C의 작품을 감상하며 힘이 없고 실망한 듯 보이기도 하고 우울해 보이는 표정인 것 같다고 하며 A친구는 C친구의 그림을 보니까 자신도 우울해 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C가 요즘 자신의 형이 고3인데 지원하는 대학에 자꾸 떨어져 가족들도 걱정하고 자신도 걱정되고 기분이 안 좋다고 고백하며 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림도 그렇게 그렸나 보다라고 말하여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에 대해 표현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위로와 함께 힘낼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더니 한결 기분이 나아보였다.</p> |
| <p data-bbox="236 1193 456 1227">떡물 난화이야기</p>  | <p>C는 초등학교때 친구가 떡물을 장난으로 먹이는 경험이 있어 떡물이 싫다고 하며 떡물매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제작과정 내내 떡물이 싫다며 투덜거렸고 선으로 표현 하라고 했는데 떡물을 이용해 점을 찍고 떡물을 떨어 뜨리는 등 대충 대충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그래도 이야기 만들때는 진지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미지를 찾는 것은 지루하고 재미 없었는데 상상해서 이야기를 꾸미는 것은 재미있고 무언가 신기한 체험을 한 것 같이라며 즐거워했다. 수업 후 C를 불러 위로의 말과 함께 중도에 포</p> |

| | |
|---|--|
| | <p>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했다고 칭찬을 해 주었더니 죄송하다며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p> <p>난화에서 찾아낸 이미지는 강아지, 미끄럼틀, 파도, 안경으로 난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p> <p>옛날 옛날에 강아지 9마리가 살았어요. 강아지 9마리는 전설의 강아지 뼈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요. 가는 도중에 미끄럼틀과 파도를 만나 마지막 남은 안경을 쓴 강아지가 뼈를 찾았어요.</p> |
| <p>버리고 싶은 나, 간직하고 싶은 나</p>  | <p>C는 평소에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또 자신이 잘 못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 글을 써보고 콜라주 작업을 하며 그러한 것들에 대해 알게 되어 기쁘다고 하였다.</p> <p>C는 좋아하는 것에는 운동화, 옷, 동물, 농구하는 사람, 음식(두유, 돌솥밥), 카메라, 자동차, 연예인(김태희)의 이미지를 붙였는데 싫어하는 것은 이미지를 찾지 못했다며 붙이지 않았다.</p> |
| <p>자랑스런 나의 손</p>  | <p>C는 제작과정 중 손뜨기를 하며 석고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다며 불안해 하였다. 그래서 옆에 가서 불안해 하는 손가락 부분에 두껍게 석고 붕대를 올려주었더니 이제 안심이라며 열심히 작업에 임했다.</p> <p>C는 E친구처럼 이 손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자신의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작품을 만들면서 의사가 되어 자신의 손으로 값진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p> |

총 평

C는 조금 소심한 성격을 지닌 남학생이었지만 첫 수업에 자신의 내면의 감정과 고민을 드러낼 만큼 자신을 표현하는데는 솔직 했다. C는 1, 2차시 때 까지는 불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집중도 못하고 힘들어 하다 3, 4차시때는 진지한 모습으로 자신을 되돌아 보며 수업에 집중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4차시때는 손뜨기 작업을 통해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미래상을 갖게 되었다.

(4) D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표 26> D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 주제/작품 | 관찰내용 |
|--|---|
| <p data-bbox="245 488 443 524">내마음의 얼굴</p>  | <p data-bbox="507 488 1238 562">D는 요즘에 자신이 좋은 기분이 좋아 내 마음의 얼굴도 웃고 있을 거라고 했다.</p> <p data-bbox="507 577 1238 936">작품제작에 들어가서는 수채화 물감은 많이 써 보았지만 아크릴 물감 사용은 처음이라며 다른 친구들처럼 어렵다고 하였다. 즐거운 내얼굴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슬픈데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이라며 바보 같다고 하였다. 친구들이 잘 그렸다고 말하자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옆에 있던 도화지로 자신의 얼굴을 덮어버렸다. 더 이상 보여주기 싫다고 하여 권유하지는 않았다.</p> |
| <p data-bbox="233 965 456 1001">먹물 난화이야기</p>  | <p data-bbox="507 965 1238 1182">D는 자신의 감정을 선으로 나타낸 적은 처음이라 말하며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하였다. D는 처음에 난화에서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을 어려워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찾아주었다. 그 후 재미 있다며 스스로 많은 이미지를 찾아 내었다.</p> <p data-bbox="507 1198 1238 1272">D는 자신이 발표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며 선생님인 나에게 부탁했다.</p> <p data-bbox="507 1288 1238 1653">난화에서 찾아낸 이미지는 도롱뇽, 물고기, 하마와 여우, 강아지, 주인, 쥐로 난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네모난 마을에 민혁짱 도롱뇽과 물고기, 하마, 여우, 강아지, 주인 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상어가 네모 마을에 쳐들어와 네모마을을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강아지를 잃어버린 주인은 해마와 도롱뇽을 타고 찾아 떠났고 상어가 여우를 먹으려고 했는데 여우 친구인 쥐가 대신 귀 한 쪽을 씹었다. 그리고 죽</p> |

| | |
|---|--|
| | <p>었다. 그래서 여우는 피 눈물이 났다. 여우는 울면서 이 마을 친구들을 찾아 떠났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만나 이 마을 친구들과 힘을 합쳐 상어를 쫓아 내고 다시 네모 마을을 되찾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p> |
| <p>버리고 싶은 나, 간직하고 싶은 나</p> | <p>D는 콜라주 작업전에 자신의 장점, 단점과 자신이 버리고 싶은 것, 간직하고 싶은 것에 쓰라고 했는데 자신의 장점 쓰는 것과 간직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에 대해 너무 힘들어 했고 한참에서야 세 개정도 썼다. 하지만 단점에 대해선 장점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썼다.</p> <p>콜라주 작업을 하면서 잘 표현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는데 의외로 잘 표현 하였다. D는 콜라주 작업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 더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내가 왜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좋아하는 것에는 안경, 음식(초코파이, 케익, 떡, 고기, 사탕), 연애인, 기타, 시계, 글자 등을 붙였고 싫어 하는 것에는 음식(우유, 두유, 약, 잡채, 버섯, 콩나물), 스키, 나비 등 붙였다.</p> |
|  | <p>자랑스런 나의 손</p> <p>D는 석고재료를 경험한 것이 처음이라며 흥미를 가지고 작품활동에 임했다. 석고붕대 손뜨기를 하며 손이 시리고 차가웠지만 재미있어 하였다. 손뜨기 완성후 꾸며보라고 하였더니 망칠가봐 겁나서 그냥 꾸미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크릴물감으로 칠하면 틀려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심 조심 채색했다. 그리고 '무지개 장갑'이라며 희망이 없거나 불쌍한 사람들이 끼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며 이 무지개 장</p> |
|  | |

| | |
|--|--|
| | <p>갑처럼 나도 희망을 주고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손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감상과 발표 시간에 친구들이 E의 장갑을 끼어보며 예쁘게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었다. E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자부심과 함께 성취감에 기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p> |
|--|--|

| | |
|-------------------|--|
| <p>총 평</p> | |
|-------------------|--|

| | |
|---|--|
| <p>D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내향성을 지닌 여학생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가끔 손으로 가리고 할 정도로 소심한 면도 보였다. 수업시간에 열심히 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발표할때는 잘 못한것 같으며 작품을 숨기기도 하고 언어로 자신을 비하 할때도 있었다. 하지만 3차시수업을 하면서 자신의 양면성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고 발표때 1, 2차수업때처럼 작품을 감춘다거나 발표를 거부하는 일은 없었다. 부끄러워도 자신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고 무엇보다 4차시 수업때는 긍정적인 미래상을 꿈꾸며 자신의 작품에 자부심을 보이며 자신을 변화시켜 보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p> | |
|---|--|

(5) E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표 27> E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 주제 | 관찰내용 |
|---|--|
| <p data-bbox="248 499 442 533">내마음의 얼굴</p>  | <p data-bbox="512 499 1241 909">E는 수채화 물감은 지우기가 힘들어 표현하기 힘들었는데 아크릴 물감은 수정이 가능해서 좋으며 아크릴 물감을 선호하였다. 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요즘 자신의 모습은 즐겁고도 감사하지만 유학생살을 잘 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되고 걱정된다고 하였다. 작품 완성한 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조금은 행복해 보이지만 걱정하고 있는 표정인 것 같이라며 자신의 마음이 표현된 것 같으며 신기해 하였다. 내 안에 있는 내가 항상 밝게 웃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p> |
| <p data-bbox="236 938 454 972">먹물 난화이야기</p>  | <p data-bbox="512 938 1241 1429">E는평소에 많이 접할 기회가 없는 먹물로 그림을 그려보니 느낌이 좋고 신기했다고 했다. 먹물을 많이 묻혀 그림을 그렸더니 너무 두꺼워 낙서를 생각한 만큼 많이 하지 못했다며 아쉬워 했다. 또한 낙서를 하고 난 후 이미지를 찾고 이야기를 만드는데 자신의 심리가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 신기하다고 했다. 또한 낙서그림이지만 슬픈감정, 화난감정, 기쁨의 감정을 선으로 표현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았다고 하였다. E가 난화에서 찾은 이미지는 수영하는 사람, 크로와상, 열대어, 산, 산길, 파도로 난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p> <p data-bbox="512 1444 1241 1666">한 사람이 수영을 하며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다. 큰 파도를 만나 죽게 되었는데 열대어가 나타나 도와 주었다. 사람이 고마워서 크로와상을 먹이로 준 뒤 한섬에 도착해 산길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오두막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다.</p> |

| | |
|---|---|
| <p>버리고 싶은 나, 간직하고 싶은 나</p> | <p>E는 다른 친구들 보다 진지하게 또 집중하여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쉽게 보고 지나쳤던 잡지를 미술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 좋았다고 하였다.</p> <p>좋아하는 것에는 커피, 연예인, 스테이크 등을 붙였고 싫어하는 것에는 우유, 탈모, 화장한 남자 등을 붙였다.</p> <p>E는 콜라주 작업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여서 좋은 수업이었다고 하였다.</p> |
|  | <p>E는 처음 만져보는 석고봉대를 물에 묻혀 문지를때 미끌미끌한 느낌이 좋다며 작품 제작 내내 즐겁고 정성을 다해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꿈이 의사나 교사라고 하며 자신의 손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며 그런 아름다운 손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였다. 작품 완성후 자신의 작품이 마음에 든다며 집에 빨리 가져가서 가족들에게도 보여 주고 싶다고 하였다.</p> |
| <p>자랑스런 나의 손</p>  | <p style="text-align: center;">총 평</p> |
| <p>E는 성격이 밝고 매사에 긍정적인 여학생으로 모든 수업에 있어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E는 다른 친구들 처럼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지만 3차시 수업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늘 자신의 좋은점 장점만을 드러내려고 했고 단점은 수치라고 생각해서 감추며 살고 싶었는데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양면성이 있으며 장점도 단점도 다 자신의 모습인데 수용하지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며 솔직하게 친구들 앞에서 고백하며 자기 수용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자신을 많이 되돌아 보았고 수업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았고 너무 재미있어 계속 하고 싶다고 했다.</p> | |

(6) F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표 28> F학생 관찰 내용과 작품

| 주제 | 관찰내용 |
|---|---|
| <p data-bbox="248 510 443 546">내마음의 얼굴</p>  | <p>F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크릴 물감을 처음 사용한다며 난해해 하였다. 옆에 E친구가 만들어 놓은 물감을 사용하였고 색 배합에 있어서도 힘들어 하였다. 나중에는 그냥 색연필이나 싸인펜, 크레파스 등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눈, 코, 입은 싸인펜으로 간단히 표현하였다. 완성후 자기의 표정이 조금 화가 난 사람같기도 하고 불만있는 사람 같이라며 자신의 그림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요즘 학원 가기가 너무 싫고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자신도 E나 A친구처럼 자신의 모습을 표현 한 것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동글동글한 얼굴과 동그란 눈이 선생님은 마음에 든다고 하며 칭찬하며 잘했다고 격려해 주었더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p> |
| <p data-bbox="236 1142 456 1178">먹물 난화이야기</p>  | <p>F는 자신은 그림을 못 그려서 미술과목을 싫어한다고 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난화에 대해 설명하고 먹물로 자유롭게 낙서하듯 그려보라고 했더니 낙서조차도 머뭇거리며 그려나갔다. F도 D처럼 이미지 찾는 부분에서 어려워 하고 귀찮아하였다. 옆에서 같이 찾아보라고 해서 두 개(물고기, 나비)를 같이 찾았고 나머지는 혼자 열심히 찾아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찾아낸 이미지는 파도, 물고기, 별 2개, 나비, 산으로 짧은 난화 이야기를 만들었다. 파도가 물고기와 별 두 개와 나비를 산과 함께 먹으려고 달려든다. 빨간 별은 조금 먹혔지만 노란별이 모두를 살렸다.</p> |

| | |
|--|---|
| <p>버리고 싶은 나, 간직하고 싶은 나</p> | <p>F는 콜라주 작업을 하면서 이미지를 찾는 부분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재미있었다고 하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동물의 사진을 비롯해 가족, 아기, 글씨(서울대, 꿈, 국어, 왕초보), 상자, 긴 머리의 여자 등을 붙였고, 자신이 싫어하고 버리고 싶은 것에는 험상궂은 인상, 글씨(작은키, 전쟁), 뚱뚱한 여자 등을 붙였다. F는 자신의 작은키와 뚱뚱한 모습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콜라주 작업에서 드러내었다.</p> |
|  | <p>F는 손에 대한 시와 글을 통해 손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손이 동물들을 돌보는 사랑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손뜨기를 한 후 검정색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 하였다. 그리고 감상과 발표시간 5분을 남겨두고 동물들이 자신의 검은 손을 무서워 할 것 같다며 다시 따뜻한 노랑색으로 채색하고 빨강색 반짝이 풀을 이용하여 손등 위에 하트를 그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손이라고 하였다.</p> |
|  | <p style="text-align: center;">총 평</p> |
| <p>F는 열등감이 많고 소심한 성격의 여학생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자신의 작은키와 뚱뚱한 모습에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미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고 매 시간마다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자기표현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모습과 자신감 결여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3차시 콜라주 작업을 통해서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자신의 버리고 싶은 부분과 자신이 갖고 싶은 부분 모두 자신이라고 말할 때 자신의 단점만을 자꾸 생각하고 장점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며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처음엔 미술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차시를 더해가면서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4차시 발표때는 자신의 손 작품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전의 소극적인 모습과 달리 자신감있게 발표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p> | |

프로그램 결과에 있어 1차시때는 6명 중 3명의 학생들이 어색하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감상과 발표시간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거나 발표를 안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작품 제작과정에서도 두 명만 열심히 참여 하였고 나머지 네 명은 자신에 대한 표현을 거부하기도 하고 내면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 귀찮아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드러내는 수업이었다. 집중하지 못하고 조금은 산만한 모습 가운데 서로에 대한 탐색의 시간이었다.

1차시 작품에서는 처음 다루어보는 매체로 인해 본 연구자도 학생들도 어려움이 있었다. 자화상 스케치 후 채색과정에서 다양한 물감 중 학생들이 물감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아크릴 물감을 선호하고 사용하기 원했다. 사용방법을 인지시키고 시범을 보였으나 처음 다루는 매체이다 보니 아크릴 물감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부분 수채화처럼 사용하였고 학생들이 채색과정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였다. 나중에 보니 작품들이 조금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학생 각 개인의 작품에 본 연구자의 의도되지 않은 많은 개입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 수업이 되었다.

2차시 수업에서는 1차시 때보다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1차시 때 보다는 표정도 태도도 좋아보였다. 먹물 난화 수업때는 1차시 아크릴 물감 사용과 내면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기에 좀 더 흥미를 유발하고 미술에 대해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수업을 선택하여 먹물 난화 이야기 수업을 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모든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편하고 즐겁게 수업에 임했다. 발표때 참여도가 높아졌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 속에 두세 명 정도는 칭찬도 하고 지지하고 수용하는 태도도 보여 조금씩 분위기에 익숙해져 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해 가는 분위기가 조성 되었다.

3차시 콜라주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고 활기가 느껴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무엇보다 발표때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1, 2차시에 비해 작품에서도 내면의 욕구, 생각, 느낌, 감정에 대해 자신을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하였다. 자신을 탐

구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인식과 자기수용의 자세와 함께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학생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결심을 확인 하는 시간 이었다.

4차시 석고붕대 손 뜨기 수업에서는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며 집중하여 작품을 완성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완성된 작품을 소중히 다루고 자부심과 만족감과 성취감에 기뻐하였다.

1차시 수업때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집중하지 못하고 선입견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던 친구들이 2차, 3차시때는 점차 반응을 보이며 수업에 집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과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고 4차시 수업때는 진지한 모습과 함께 긍정적인 미래상을 꿈꾸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점차적인 작은 변화들을 느낄 수 있어 흡족하였다. 반면 수업 계획안에는 차시마다 45분의 수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차시마다 거의 90분 정도의 수업을 하여 수업계획안의 시간배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을 드러내었다.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나의 발견’ 단원을 수업 후 설문조사하여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결과내용을 분석하였다.

1. 미술활동을 시작할 때의 느낌은 어떠했나요?

<표 29> 수업 전 흥미도

| 구분 | 빈도(명) | 비율(%) |
|--------------------|-------|-------|
| 매우 흥미로워서 꼭 해보고 싶다. | 3 | 50 |
| 흥미로울 것 같다. | 2 | 33 |
|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 | 0 | 0 |

| | | |
|---------|---|-----|
| 잘 모르겠다. | 1 | 17 |
| 계 | 6 | 100 |

수업을 시작하기 전 흥미도 질문에 83%로 6명 중 5명이 흥미로울 것 같다고 응답하였고 1명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수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흥미와 기대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각 각의 재료(매체) 경험 후 가장 선호하는 매체는 어떤 것인가요?

<표 30> 매체에 대한 선호도

| 매체 | 빈도(명) | 비율(%) |
|-------------|-------|-------|
| 아크릴 물감 | 3 | 50 |
| 먹물 | 0 | 0 |
| 콜라주의 다양한 재료 | 1 | 17 |
| 석고붕대 | 2 | 33 |
| 계 | 6 | 100 |

매체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 50%가 아크릴 물감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고, 33%는 석고붕대를 선호한다고 나타났으며 콜라주의 다양한 재료를 선호 하는 학생도 있었다. 아크릴 물감을 거의 사용해 보지 않았거나 처음 써보는 매체라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수정도 가능하고 채색하는 느낌이 좋으며 또 사용해 보고 싶다고 하였다. 먹물에 대해선 냄새가 난다고 선호하는 학생이 없었다.

3. 가장 재미있었던 미술활동?

<표 31> 주제에 대한 선호도

| 주제 | 빈도(명) | 비율(%) |
|--------------------|-------|-------|
| 내 마음의 얼굴 | 0 | 0 |
| 떡물 난화이야기 | 0 | 0 |
| 가지고 싶은 나, 버리고 싶은 나 | 0 | 0 |
| 자랑스런 나의 손 | 6 | 100 |
| 계 | 6 | 100 |

이번 프로그램 중 가장 재미있었던 미술활동에 대한 질문에 있어 100% 모두가 석고봉대를 활용해 손을 뜬 ‘자랑스런 나의 손’으로 응답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이 석고봉대 손 뜨기 작업을 하며 손에 대한 역할과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의 손으로 좋은 일들을 할 거라는 다짐과 함께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하였고 작품 완성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손 작품에 자부심을 느꼈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꼈던 활동이었기에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다.

4.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정을 어느 정도 나타냈다고 생각 하나요?

<표 32> 작품을 통한 자아표현과 감정표출

| 구분 | 빈도(명) | 비율(%) |
|-----------------|-------|-------|
| 매우 잘 나타낼 수 있었다. | 3 | 50 |

| | | |
|------------------|---|-----|
|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었다. | 2 | 33 |
| 별 느낌이 없었다. | 1 | 17 |
| 기타 | 0 | 0 |
| 계 | 6 | 100 |

자신의 작품을 통한 자아표현과 감정표출 정도에 대한 질문에 매우 잘 나타낼 수 있었다는 응답이 50%,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었다는 응답이 33%, 별 느낌이 없었다는 응답이 17%로 대부분의 학생이 작품을 통해 어느정도 솔직한 자아표현과 감정표출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5. 미술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위와 같은 질문에 학생들은 각자 다양한 응답이 이루어져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내 자신을 좀 더 솔직하게 되돌아보게 되었고 내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불만과 불평으로 자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많았는데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에 대해 좀 진지해졌다.

둘째, 그림을 잘 못 그려 미술이 어렵게만 느껴져 싫어했었는데 내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어 재미있었고 자신감이 생겼다.

셋째, 친구의 고민과 장단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친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좋았다. 친구들을 만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거의 욕하거나 이해를 많이 못했는데 반성하게 되었고 친구들을 이해하며 칭찬과 격려의 삶을 살아야겠다.

넷째, 나의 감정과 생각, 문제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잘 표현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미술활동을 통해 나를 표현하니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표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앞으로는 내 자신을 잘 표현하며 살아야겠다.

다섯째,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니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가 싫지만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6. 작품제작을 마치고 난 후의 느낌은 어떠한가?

위와 같은 질문에는 거의 비슷한 응답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생각으로 열심히 만든 작품이 나를 표현 한 것 같아 소중하게 느껴졌다.

둘째, 학교에서 하는 미술수업과 비슷했지만 다양한 재료를 마음껏 사용하며 자신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좋았고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다. 새로웠고 학교 미술시간에도 이런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셋째, 나의 성격, 감정, 나의 고민과 문제 등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좋았다.

넷째, 미술수업을 통해 작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좋았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흥미롭고 재미있게 수업에 임하였고 행동상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면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작품으로 표출하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고쳐나가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소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자기표현의 어려움을 가졌던 학생도 작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해 보려는 시도와 함께 작은 변화들을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에 도움이 되었던 수업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나의 발견’ 단원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설계 후 수업에 대한 프로그램 결과내용을 토대로 분석 하였다. 수업을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반응

이 없는 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사고의 전환에 따른 작은 변화들이 이루어져 긍정적 자아감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치유적 미술활동은 다양한 미술 매체를 통한 다양한 표현활동 속에서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와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학습이 이루어졌다. 또한 자신을 되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기인식, 자기 이해, 사회성 향상 등 인성 교육적 측면에 도움을 주었다. 더불어 교사는 학생을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중등미술교육에서 치료적 미술활동은 교육적 활용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IV. 결 론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이행기이자 과도기인 청소년기는 신체, 생리 발달, 인지, 정서, 사회발달 등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로 발달특성상 겪게 되는 스트레스 뿐 아니라 입시경쟁의 부담과 학업에 대한 압박감, 또래 관계에서의 갈등 등을 비롯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학교 안에서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기표현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발견하여 스스로 해결해 가는 능력을 갖추어 자아정체감 형성과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치료적 미술교육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중등미술교과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하고 인근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6명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1일~12일 약 2주 간에 걸쳐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치료적 미술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에 적용된 단원은 자신의 느낌, 생각, 감정 등의 자기표현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발견’이라는 단원을 주제로 4차시에 걸쳐 수업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는 각 학생의 작품 감상 보고서를 참고하여 개인관찰 내용과 설문조사 결과 내용 등을 반영하여 나타내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미술치료기법이 활용된 치료적 미술수업은 다양한 재료를 통해 자신의 심상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미술에 대해 거부반응과 흥미를 잃고 있는 청소년에게 미술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창의성과 표현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둘째, 다양한 심상표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예

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여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셋째,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 및 자신감을 갖게 하였고 또한 서로의 작품 감상과 발표를 통해 서로의 모습을 수용·지지·이해하여 자기존중감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갖게 하여 사회성을 향상시켰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료적 미술수업을 통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평가에 대한 모호성 문제와 개개인의 특성과 문제에 대한 사전지식을 필요로 하며 교사로서 인성적 자질과 미술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이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점으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측면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2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4개의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실시하였기에 학생들의 변화를 알아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그 효과성을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더 많은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술교과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어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이 많은 미술교사들에게 치료적 미술교육의 가능성과 효용가치를 알려주는 촉매제가 되길 바라며 본 논문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수립됨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 이러한 치료적 미술교육은 기존의 미술 수업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의 시도로 미술에 흥미를 갖게 할 것이며 청소년의 심적 탈출구를 마련하고 청소년이 당면한 여러 문제와 병리현상의 예방 및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되어 보다 가치 있는 교육으로서 중등미술교육에 새로운 교육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가. 단행본

- 한상철, 『청소년학』, 서울 : 학지사, 2008.
- 홍봉선·남미애, 『청소년복지론』, 서울 : 양서원, 2006.
- 오윤선, 『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 예영, 2007.
- 주리에, 『미술치료 요리책』, 서울 : 아트북스, 2004.
- 옥금자, 『청소년임상미술치료방법론』, 서울 : 하나출판사, 2007.
- 박신자·박윤미, 『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의 이해와 적용』, 서울 : 이담, 2011.
- 김선현, 『청소년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이담, 2010.
-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 학지사, 2007
- 주리에, 『미술치료는 마술치료』, 서울 : 학지사, 2002.
- 최외선 외 3인, 『미술치료기법』, 서울 : 학지사, 2010.
- 정현희, 『실제 적용 중심의 미술치료』, 서울 : 학지사, 2010.
- 수잔 마킨, 『미술치료 활동기법』, 서울 : 시그마프레스, 2009.
-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동화문화사, 2000.
- 김선현, 『마음을 읽는 미술치료』, 서울 : 넥서스, 2007.
- 김성숙 외 8인,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 : 학지사, 2009.
- 김춘일, 『중등미술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2006.
- 이성도 외 4인, 『중학교 미술 교사용 지도서』, 서울 : 교육연구사, 2010.
- 김영민, 『스트레스 감소방안을 위한 임상미술치료 실제』, 서울 : 21세기사, 2004.
- 신민섭 외,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서울 : 학지사, 2002.
- Judith A. Rubin 저, 김진숙 역, 『미술치료학 개론』, 서울 : 학지사, 2010.

나. 학위논문

- 이지혜, 「미술치료를 활용한 중등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인실, 「중등 미술 교육에서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서연, 「청소년을 위한 학교미술치료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10.
- 이보나,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10.
- 오가빈, 「미술치료 기법을 활용한 청소년 미술교육 지도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10.
- 권준범, 「미술심리치료 검사를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2.
- 방영주,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미술치료교육」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7.
- 도은지,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 수업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7.
- 정은영, 「미술교육을 통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미술치료」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1.
- 이선경, 「치료적 관점에서의 청소년 미술교육」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9.
- 이선희, 「중학교 미술수업에서 미술치료의 활용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9.
- 유은지, 「학교미술치료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예술치료전공, 2005.
- 배순자, 「청소년기 정서교육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 연구」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0.
- 유은선,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미술치료기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1.
- 조은희, 「중등 미술 교육과정에서의 미술치료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6.
- 엄진아, 「중등미술교육에서 미술치료의 역할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8.
- 김민영, 「중등미술교육에서의 미술치료적 접근 방법을 활용한 수업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10.
- 조소은, 「중등 미술교육과정에서 미술치료 수업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5.
- 유지연, 「청소년의 자아발견을 위한 분석심리학적 미술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2008.

Abstract

A Suggestion for Therapeutic Art Activities in Secondary Art Education

Sohee Lee

Major in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dolescence is itself a chaotic time of physical and mental changes. Korean adolescents do not only experience the stress from such developmental traits, but also live with other stresses due to the burden from competitive examinations and pressure from studies due to a college entrance exam-oriented educational system that creates overly heated competition. These stresses cause students' maladjustment to school and, even more seriously, their problematic behaviors.

Adolescents situated in this turbulent period need to recognize their own emotions in their situations and have an outlet to express themselves. Most importantly they should form their self-identity and develop the right values for life. Therefore we should provide them with an opportunity and a passageway so that they can release stress through self-expression, identify their worries and issues, have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themselves, and establish a positive self.

Art therapy is a tool to express one's mind. It is a part of psychotherapy that interprets people's states of mind from their artwork. It can heal the mind through artistic activity. It calms adolescents' emotions, develops their potential and by giving them a self-expressionistic opportunity, and plays the role of a travel guide on their journey to discovering their identity.

Therefore this paper looks into the feasibility of therapeutic art education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adolescents and art therapy through case studies and a literature review. And by selecting an art therapy program applicable to secondary school curriculum and designing teaching and learning plan, it suggests a class teaching plan and applies it to the real classroom.

For this study I conducted an art therapy class for six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Banghak-dong, Dobong-gu in Seoul for two weeks from November 1st to 12th in 2011. The unit for the class, whose topic was "Discovering Myself", was intended to help students form a self-identity by expressing one's feelings, thoughts and emotions, and releasing stresses. The class was comprised of four lessons. For the findings of this study, I referred to each student's report on artwork appreciation, and reflect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By analyzing these findings, I achiev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a therapeutic art class adopting art therapy techniques interested the adolescents in art who used to react negatively and lost interest in art by allowing them to freely express their thoughts with various materials, and improved their creativity and expression. Secondly, by encouraging students to express their thoughts in various

ways, this art class helped them to reflect on themselves, recognize their problems, prevent any future problems and develop a positive self-image. Thirdly, by finishing their artwork, students came to have a sense of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confidence. By presenting their artwork and appreciating each others' artwork, they accepted, supported and understood each other. By doing so, they developed respect for others and improved socially.

This paper designed a teaching and learning plan, applied it to a real classroom situation and came up with the above results. However, its subjects were limited to six students living in Banghak-dong, Dobong-gu in Seoul, thus this study is too limited to generalize about its effectiveness. Therefore a stronger confirmation of its effectiveness is needed by expanding the research objectives to more secondary school adolescents.

I hope this paper will be a catalyst toward letting many art teachers know the usefulness of therapeutic art education. Based on this paper, further research on the same topic might be conducted and could then be applied to the classroom. I expect such therapeutic art education will provide adolescents a psychological outlet and can be used as a preventive and communicational tool for many issues and pathological symptoms that adolescents face. It would suggest a new educational direction for secondary art education as a valuable educational tool.

<부록1>

| 4 차시 수업 주제 : 자랑스런 나의 손 | |
|--|--|
| <p style="text-align: center;">그 사람의 손을 보면 (천양희)</p> <p style="text-align: center;">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p> <p>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메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빈손의 의미 (정호승)</p> <p>내가 누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어야 한다. 내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놓거나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지 말아야 한다. 내 손에 다른 무엇이 가득 들어 있는 한 남의 손을 잡을 수는 없다 소유의 손은 반드시 상처를 입으나 텅 빈 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그동안 내가 빈 손이 되어 다른 사람의 손을 얼마만큼 잡았는지 참으로 부끄럽다</p> <p style="text-align: center;">손은 답을 알고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엄마의 손은 약손이다. 온몸의 기를 모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있다. 2. 손에 손 잡고 강한 팀웍을 만든다. 3. 악수는 우호의 표시이다. 4. 손뼉을 치는 것은 온몸으로 환호하는 것이다. 5. 새끼손가락을 걸면 강한 약속이다 6.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은 온 몸으로 염원하는 것이다. 7. 손톱 장식이 많은 사람은 화사한 성격이다. 8.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은 가해자는 가장 혹독한 고통을 주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큰 고통을 감수 한다는 뜻이다. 9. 수화로 사랑을 고백하면 더 감동을 준다. 10. 손바닥의 굳은 살은 인생의 나이테이다. |
| 출처 : http : bolog.daum.net/annethrough/11288762 | |

<부록2>

작품 감상 보고서

| 감상 제목 | | | | | |
|---------------------------|--|----|--|----|--|
| 감상 일시 | | | | | |
| 학년 반 | | 번호 | | 성명 | |
| 작품 감상 내용 및 소감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매체(재료)를 경험한 느낌2. 작품 설명3. 작품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싶은 부분4. 작품제작을 마치고 난 후의 느낌 | | | | |

<부록3>

설문지

학년 반 이름 :

1. 미술활동을 시작할 때의 느낌은 어떠했나요?

| 구분 | |
|-------------------|--|
| 매우 흥미로워서 꼭 해보고 싶다 | |
| 흥미로울 것 같다 | |
|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 | |
| 잘 모르겠다. | |

2. 각 각의 재료(매체) 경험 후 가장 선호하는 매체는 어떤 것인가요?

| 매체 | |
|-------------|--|
| 아크릴 물감 | |
| 먹물 | |
| 콜라주의 다양한 재료 | |
| 석고붕대 손뜨기 | |

3. 가장 재미있었던 미술활동?

| 주제 | |
|--------------------|--|
| 내 마음의 얼굴 | |
| 먹물 난화이야기 | |
| 가지고 싶은 나, 버리고 싶은 나 | |
| 자랑스런 나의 손 | |

4.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정을 어느정도 나타냈다고 생각하나요?

| 구분 | |
|------------------|--|
| 매우 잘 나타낼 수 있었다. | |
|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었다. | |
| 별 느낌이 없었다. | |
| 기타 | |

5. 미술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6. 작품제작을 마치고 난 후의 느낌은 어떠한가?

<부록4>

◎ 1차시 수업 참고 작품 (자화상 작품)

| | | |
|---|---|--|
|  |  |  |
| 빈센트 반 고흐 | 뒤러 | 척 클로스 |
|  |  |  |
| 프리다 칼로 | 렘브란트 | 천경자 |
|  |  |  |
| 에곤실레(청년시절) | 윤두서 | 강세향 |
|  |  |  |
| 학생 작품(중학생) | 학생 작품(중학생) | 학생 작품(중학생) |

<부록5>

◎ 2차시 수업 참고 작품 (추상화 작품)

| | | |
|---|---|--|
|  |  |  |
| 잭슨 폴록 - 넘버 6 | 잭슨 폴록 - 원을 자르는 달의 여인 | 잭슨폴록 - 하얀빛 |
|  |  |  |
| 칸딘스키 - 파랑을향하여 | 칸딘스키 - 구성 9 | 칸딘스키 - 마음속의 축제 |
|  |  |  |
| 칸딘스키 - 푸른하늘 | 칸딘스키 - 동심원이 있는 사각형 | 김환기 - 새 |
|  |  |  |
| 몬드리안 -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 몬드리안 - 빨강,파랑,노랑의 구성 | 김환기 - 여름달밤 |

<부록6>

◎ 3차시 수업 참고 작품 (콜라주 작품)

| | | |
|---|---|--|
|  |  |  |
| <p>데릭 코어스(Derek Gores)-초상화</p> | <p>피카소-세레의 풍경</p> | <p>피카소- 바이올린</p> |
|  |  |  |
| <p>박명선-Face I</p> | <p>박명선-still life III</p> | <p>툼베셀만-정물 20</p> |
|  |  |  |
| <p>피카소-등나무가 있는 정물화</p> | <p>학생작품</p> | <p>학생작품</p> |
|  |  |  |
| <p>Sarah Aspinall-폴라주</p> | <p>Sarah Aspinall-폴라주</p> | <p>Rauschenberg-폴라주</p> |

<부록7>

◎ 4차시 수업 참고 작품 (조소 작품)

| | | |
|-----------------------|-----------------------|-----------------------------------|
| | | |
| <p>민형기 - 보금자리(소조)</p> | <p>알렉산더 칼더- 작은거미</p> | <p>알렉산더 칼더 - 새우잡는 올가미와 물고기 꼬리</p> |
| | | |
| <p>학생작품-손 석고뜨기</p> | <p>학생 작 - 마라톤</p> | <p>이상태 - 마음의 창</p> |
| | | |
| <p>심조</p> | <p>학생 작 - 손 석고 뜨기</p> | <p>학생 - 야구하는 사람</p> |
| | | |
| <p>윤정귀 - 소조, 테라코타</p> | <p>학생 - 연주</p> | <p>학생 - 찰흙부조</p> |

